

제7권 제2호

ISSN 1599-9009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05. 2/4

제목차례

2005년 에너지 수요 전망

요 약	1
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7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7
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1
3. 석유제품 소비 동향	15
4. 전력 소비 동향	20
5. LN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22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27
II.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32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32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39
III. 2005년 에너지 수요 전망	42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43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46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49
4. 전력 수요 전망	52
5. LN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54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58

표차례

〈표 I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7
〈표 I -2〉 에너지원별 소비증가 기여율 및 기여도	10
〈표 I -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2
〈표 I -4〉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증가 기여율 및 기여도	14
〈표 I -5〉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 기여율 및 기여도	15
〈표 I -6〉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16
〈표 I -7〉 주요 석유제품 소비 동향	18
〈표 I -8〉 전력소비 동향	20
〈표 I -9〉 LNG 소비 동향	24
〈표 I -10〉 도시가스 소비 동향	25
〈표 I -11〉 석탄 소비 동향	27
〈표 I -12〉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31
〈표 II -1〉 최근의 경제동향	33
〈표 II -2〉 주요 경제지표 전망	36
〈표 II -3〉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지표 전망	38
〈표 II -4〉 2005년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39
〈표 II -5〉 IEA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	41
〈표 II -6〉 7월 해외 주요기관 유가 전망	41
〈표 III -1〉 경제전망	42
〈표 III -2〉 평균기온 및 냉 · 난방도일 (2005년)	42
〈표 III -3〉 총에너지 수요 전망	43

〈표Ⅲ-4〉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47
〈표Ⅲ-5〉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50
〈표Ⅲ-6〉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51
〈표Ⅲ-7〉 전력수요 전망	52
〈표Ⅲ-8〉 LNG 수요 전망	55
〈표Ⅲ-9〉 도시가스 수요 전망	56
〈표Ⅲ-10〉 석탄 수요 전망	59
〈표Ⅲ-11〉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61

그림차례

[그림 I -1]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9
[그림 I -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율 추이	13
[그림 I -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7
[그림 I -4]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19
[그림 I -5]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19
[그림 I -6]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21
[그림 I -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22
[그림 I -8]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26
[그림 I -9] 용도별 석탄소비 및 점유율 추이	28
[그림 I -10]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추이	30
[그림 I -11]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31
[그림 II-1]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40
[그림 III-1] 총에너지원별 점유율 전망	46
[그림 III-2] 전력 수요 전망	53
[그림 III-3]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54
[그림 III-4]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추이	57
[그림 III-5] 용도별 석탄수요 및 점유율 전망	58

요 약

에너지 소비 동향

- 2004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2.4%의 낮은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한 114.8백만 TOE를 기록
 -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기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3.1%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등 소비 위축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성장률을 상회하여 GDP 탄성치가 1.419를 기록하였다는 것임
 - 2000년대 들어 에너지소비 GDP 탄성치는 지속적으로 비탄력적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1을 초과
 -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 하에서의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 에너지 소비 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 소비부진의 상대적인 영향과 1/4분기 전년보다 난방도일이 증가(14%)한데 따른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2차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데다 납사와 같은 비에너지유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증가세가 높았으며 석탄, LNG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89.6백만 TOE를 기록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3.6% 증가하였으며 2/4분기는 다소 낮아진

3.4%로 나타남. 1/4분기 성장률이 2/4분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전년의 낮은 증가에 대한 상대적 요인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1/4분기에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난방도일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됨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부문의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7.2%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산업용 소비는 경기부진으로 2.0% 증가하는데 그침. 수송용 소비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 감소세에서 2.4% 증가세로 반전됨

총에너지 수요 전망

- 2005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229.78만 TOE로 전망됨
 - 2005년 경제성장률이 2004년(4.6%) 보다 다소 낮은 3.8%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004년보다 1.9%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는 1.132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을 넘어설 전망
 -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으나 총에너지 소비는 4.4%나 증가함.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5%로 상승할 전망이나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는 1 이하로 하락할 전망
 - 결국 금년의 에너지소비 GDP 탄성치가 1보다 크게 전망되나 이러한 현상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됨
 - 2000년대 들어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아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 또는 이상기온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은 낮음

총에너지 수요 전망

분기	2004					2005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석탄	20,430	19,478	20,446	21,753	82,116	20,052	20,015	21,070	22,278	83,414
(천톤)	(3.9)	(1.3)	(5.1)	(4.7)	(3.8)	(-1.8)	(2.7)	(3.0)	(2.4)	(1.6)
석유	200.6	176.6	176.2	199.0	752.3	207.4	180.0	178.8	202.1	768.3
(백만bbl)	(-2.8)	(0.3)	(2.0)	(-4.3)	(-1.4)	(3.4)	(1.9)	(1.5)	(1.6)	(2.1)
LNG	7,896	4,400	3,504	6,009	21,809	8,263	3,905	4,006	6,833	23,008
(천톤)	(24.6)	(13.4)	(21.0)	(9.3)	(17.2)	(4.7)	(-11.2)	(14.3)	(13.7)	(5.5)
수력	0.8	1.2	2.9	1.0	5.9	0.7	1.3	2.8	1.0	5.8
(TWh)	(-19.4)	(-33.1)	(-2.9)	(-13.8)	(-14.9)	(-8.3)	(5.8)	(-2.4)	(-4.2)	(-1.8)
원자력	30.1	30.8	35.5	34.3	130.7	35.5	37.6	37.2	37.4	147.7
(TWh)	(-7.9)	(8.8)	(3.1)	(0.2)	(0.8)	(18.2)	(22.1)	(4.6)	(8.9)	(13.0)
기타	911	992	953	1,121	3,977	1,140	1,254	1,093	1,292	4,779
(천TOE)	(20.8)	(24.0)	(24.4)	(21.8)	(22.7)	(25.2)	(26.4)	(14.7)	(15.2)	(20.2)
1차에너지	59.0	51.0	51.8	58.5	220.8	61.6	53.1	53.8	61.2	229.8
(백만TOE)	(2.0)	(3.1)	(4.6)	(0.3)	(2.4)	(4.5)	(4.2)	(3.8)	(4.7)	(4.3)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 총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수력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 소비는 2005년 전년대비 2.1% 증가한 768.4백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됨.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석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2004년 증가율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와 비에너지유에 대한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LNG 소비는 2004년(17.4%)에 비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5.5% 증가한 23.0백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 급증에 따른 상대적 요인과 원자력 올진 5,6호기(2,000MW)가 가동됨에 따라 발전부문에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실제로 1/4분기 발전용 LNG 소비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4분기 LNG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1.2%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임. 원자력은 신규 원전 가동에 따

라 전년 0.8% 증가에서 금년에는 1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석탄 수요는 발전용 수요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둔화(3.7%)되고 산업용 소비도 전년대비 2.1% 감소하여 가정·상업부문 무연탄 소비가 급증(35.9%)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2005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년대비 3.4% 증가한 171.7백만 TOE가 될 전망
 - 상반기 중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최종에너지 소비는 하반기에도 3.4% 증가할 전망.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1/4분기에 난방도일의 증가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평년 기온을 가정할 경우 3/4분기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9%로 2/4분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4/4분기에는 3.9%로 금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공공부문이 6.4% 증가하여 금년도 에너지 소비를 주도할 전망이며, 수송부문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산업부문은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1/4분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난방용 수요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7.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도 5.9% 증가. 하반기에는 3/4분기 2.9%로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4/4분기는 전년 동기 마이너스 성장의 상대적인 영향으로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감소세를 보였던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05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4분기는 전년 동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인 효과로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95.0백만 TOE로 전망됨.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로 가면서 증가율이 다소 상승할 전망
- 부문별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용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고 수송용은 20.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정·상업·공공부문의 비중은 23.8%로 소폭 상승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2004					2005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산 업	23.5	22.5	22.6	24.4	93.0	23.9	22.9	23.3	24.9	95.0
(백만TOE)	(2.2)	(2.5)	(3.2)	(1.8)	(2.4)	(2.0)	(2.0)	(2.7)	(2.0)	(2.2)
수 송	8.3	8.8	8.8	8.7	34.6	8.4	9.1	9.1	9.2	35.8
(백만TOE)	(1.7)	(0.5)	(1.9)	(-4.0)	(-0.1)	(1.0)	(3.7)	(3.6)	(5.3)	(3.4)
가정·상업	14.0	7.7	6.4	10.3	38.4	15.1	8.1	6.6	11.1	40.9
(백만TOE)	(0.5)	(2.8)	(2.9)	(-5.7)	(-0.4)	(7.8)	(5.9)	(2.8)	(7.1)	(6.4)
합 계	45.8	38.9	37.8	43.5	166.0	47.5	40.2	38.9	45.2	171.7
(백만TOE)	(1.6)	(2.1)	(2.9)	(-1.3)	(1.2)	(3.6)	(3.2)	(2.9)	(3.9)	(3.4)
도시가스	6,292	3,167	2,017	3,943	15,420	6,951	3,436	2,159	4,510	17,056
(백만m ³)	(5.9)	(7.4)	(6.4)	(-0.1)	(4.7)	(10.5)	(8.5)	(7.0)	(14.4)	(10.6)
석유	190.4	169.9	170.0	189.0	719.3	193.9	173.5	172.3	191.6	731.4
(백만bbl)	(-0.2)	(0.8)	(1.7)	(-3.6)	(-0.5)	(1.8)	(2.2)	(1.4)	(1.4)	(1.7)
전력	80.2	75.3	78.5	78.1	312.1	84.8	80.0	83.3	83.6	331.7
(TWh)	(5.6)	(6.0)	(9.4)	(4.3)	(6.3)	(5.7)	(6.1)	(6.2)	(7.1)	(6.3)
석탄	8,451	8,203	8,309	9,286	34,248	8,351	7,863	8,427	9,407	34,048
(천톤)	(-3.2)	(-2.2)	(-2.1)	(1.2)	(-1.5)	(-1.2)	(-4.1)	(1.4)	(1.3)	(-0.6)
열 및 기타	1,532	1,166	1,022	1,552	5,271	1,872	1,447	1,177	1,762	6,258
(천TOE)	(13.6)	(21.0)	(21.5)	(14.3)	(16.9)	(22.2)	(24.1)	(15.2)	(13.6)	(18.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2005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도시가스와 전력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석유 및 석탄의 증가율은 완만할 전망이다
- 경기부진과 함께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소비는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감소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년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 고급에너지로 분류되는 도시가스와 전력의 수요는 각각 10.6%와 6.3%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열 및 기타에너지는 급증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18.7% 증가할 전망
 - 석탄 소비는 상반기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34.0 백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 2004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2.4%의 낮은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한 114.8백만 TOE를 기록
-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기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3.1%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등 소비 위축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성장률을 상회하여 GDP 탄성치가 1.419를 기록하였다는 것임

〈표 I-1〉 총에너지 소비 동향

분기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석탄	79,120	20,430	19,478	20,446	21,753	82,116	20,052	20,015	40,067
(천톤)	(4.2)	(3.9)	(1.3)	(5.1)	(4.7)	(3.8)	(-1.8)	(2.7)	(0.4)
석유	762.9	200.6	176.6	176.2	199.0	752.3	207.4	180.0	387.4
(백만bbl)	(0.0)	(-2.8)	(0.3)	(2.0)	(-4.3)	(-1.4)	(3.4)	(1.9)	(2.7)
LNG	18,610	7,896	4,400	3,504	6,009	21,809	8,263	3,905	12,169
(천톤)	(4.7)	(24.6)	(13.4)	(21.0)	(9.3)	(17.2)	(4.7)	(-11.2)	(-1.0)
수력	6.9	0.8	1.2	2.9	1.0	5.9	0.7	1.3	2.0
(TWh)	(29.7)	(-19.4)	(-33.1)	(-2.9)	(-13.8)	(-14.9)	(-8.3)	(5.8)	(0.3)
원자력	129.7	30.1	30.8	35.5	34.3	130.7	35.5	37.6	73.1
(TWh)	(8.9)	(-7.9)	(8.8)	(3.1)	(0.2)	(0.8)	(18.2)	(22.1)	(20.1)
기타	3,241	911	992	953	1,121	3,977	1,140	1,254	2,394
(천TOE)	(10.8)	(20.8)	(24.0)	(24.4)	(21.8)	(22.7)	(25.2)	(26.4)	(25.8)
1차에너지	215.1	59.0	51.0	51.8	58.5	220.8	61.6	53.1	114.8
(백만TOE)	(3.1)	(2.0)	(3.1)	(4.6)	(0.3)	(2.4)	(4.5)	(4.2)	(4.4)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0년대 들어 에너지소비 GDP 탄성치는 지속적으로 비탄력적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1을 초과

-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낮아지고 경기변동에서 IT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의 GDP 탄성치는 경기상승국면에서 낮아지고 하강국면에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긴 하였으나 1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였음.

-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 하에서의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 에너지 소비 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 소비부진의 상대적인 영향과 1/4분기 전년보다 난방도일이 증가(14%)한데 따른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월별로는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데다 납사와 같은 비에너지유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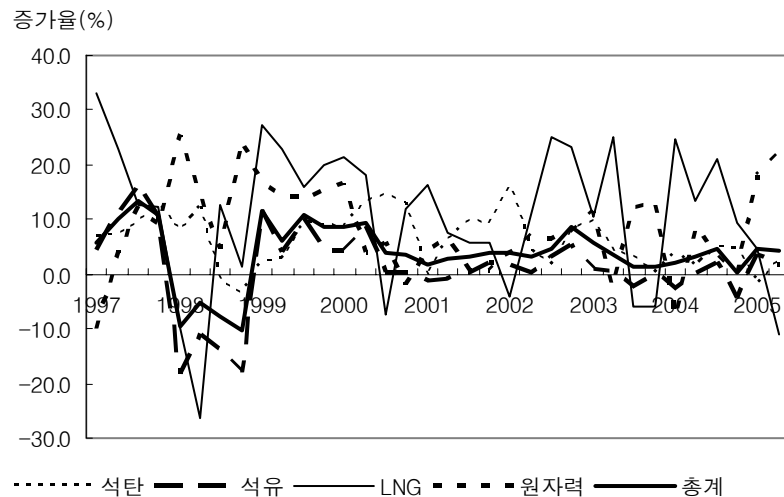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증가세가 높았으며 석탄 LNG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상반기 석유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387.4백만 배럴을 기록함. 고유가 및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처럼 석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증가에 대한 상대적 요인이 작용한 것 외에도 2005년 상반기 중 납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분기별로는 1/4분기에 난방용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비 3.4% 증가하였으나 2/4분기는 1.9%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
- 상반기 석탄 소비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40.1백만 톤을 기록. 산업용 유연탄과 무연탄의 소비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고유가로 가정·상업부문 무연탄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전환부문의 유연탄 소비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함. 분기별로는 1/4분기 원자력발전 증가로 전환부문의 유연탄 소비가 2.3% 감소되는 등 가정상업부문의 무연탄 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세를 보여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환부문 유연탄 소비가

7.7%라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로 반전됨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2004년 17.2%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 LNG 소비는 200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규 원자력발전(울진5,6호기) 가동으로 발전용 수요가 17.3%나 감소한데 따른 결과임. 분기별로는 1/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11.2% 감소하였음
- 원자력은 울진 5, 6호기가 신규로 가동됨에 따라 200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20.1%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높은 증가세는 2004년 상반기 일부 원전의 가동 중지로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 영향도 반영된 것임
- 기타 에너지는 2004년 22.7%나 증가한데 이어 2005년 상반기 중에도 전년 동기대비 25.8%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

〔그림 1-1〕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에너지원별 소비증가 기여도 및 기여율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에너지 소비 증가의 원별 기여율을 보면 석탄

의 기여율이 30%에서 50% 사이의 안정적이고 높은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LNG와 원자력의 경우도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이 있었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기여를 보임. 반면 석유의 경우는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타연료로의 대체 및 원료유 소비 변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목할만한 점은 기타에너지의 기여율이 14.2%로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임

- 2005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증가 기여율은 원자력이 6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석유로 27.4%를 기록하였으며 기타에너지도 10.2%로 높은 편임. 반면에 석탄과 LNG는 소비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상반기 에너지소비 증가율 4.4%에 대한 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자력이 2.8%p, 석유가 1.2%p, 기타에너지 0.4%p로 세 에너지가 상반기 에너지 소비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함

〈표 1-2〉 에너지원별 소비증가 기여율 및 기여도

(기여율 : %, 기여도 : %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상
소비증가 기여율	석탄	41.3	50.7	33.1	31.4	38.9	2.2
	석유	26.1	1.9	19.8	-0.5	-33.7	27.4
	LNG	18.0	33.7	22.6	17.0	80.4	-3.4
	수력	-1.0	-6.6	2.8	6.1	-5.0	0.0
	원자력	12.8	14.3	17.0	41.1	5.1	63.6
	기타	2.8	5.9	4.6	4.9	14.2	10.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증가 기여도	석탄	2.6	1.5	1.7	1.0	0.9	0.1
	석유	1.7	0.1	1.0	0.0	-0.8	1.2
	LNG	1.1	1.0	1.2	0.5	1.9	-0.2
	수력	-0.1	-0.2	0.1	0.2	-0.1	0.0
	원자력	0.8	0.4	0.9	1.3	0.1	2.8
	기타	0.2	0.2	0.2	0.2	0.3	0.4
	총계	6.4	2.9	5.2	3.1	2.4	4.4

- 기타에너지 소비는 경제적인 동인보다는 정책적 동인에 의한 보급의 역할이 큰데 현재의 높은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소비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급 예측의 오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89.6백만 TOE를 기록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3.6% 증가하였으며 2/4분기는 다소 낮아진 3.4%로 나타남. 1/4분기 성장률이 2/4분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전년의 낮은 증가에 대한 상대적 요인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1/4분기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난방도일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됨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부문의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7.2%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산업용 소비는 경기부진으로 2.0% 증가하는데 그침. 수송용 소비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 감소세에서 2.4% 증가세로 반전됨
 - 가정·상업부문은 난방용 소비 증가로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4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원별로는 도시가스 소비증가율이 10.1%로 높았으며 전력 소비도 상업용 소비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 4/4분기에 23.2%나 증가한 무연탄 소비는 금년 1/4분기 41.5%, 2/4분기에는 36.4%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지속함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4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하

였으나 2005년 들어서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1/4분기 1.0%, 2/4분기는 3.7% 증가하여 상반기 전체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유가 및 유가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가 상반기 중 6.5% 증가하여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를 주도함 휘발유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4년 상반기 휘발유 소비가 6.0%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과 주5일제의 확산 및 승용차 대형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수송용 경유는 전년의 수준을 유지

〈표 1-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구 분	2003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	상반기
산 업	90.8	23.5	22.5	22.6	24.4	93.0	23.9	22.9	46.8
(백만TOE)	(1.8)	(2.2)	(2.5)	(3.2)	(1.8)	(2.4)	(2.0)	(2.0)	(2.0)
수 송	34.6	8.3	8.8	8.8	8.7	34.6	8.4	9.1	17.5
(백만TOE)	(2.6)	(1.7)	(0.5)	(1.9)	(-4.0)	(-0.1)	(1.0)	(3.7)	(2.4)
가정·상업	38.6	14.0	7.7	6.4	10.3	38.4	15.1	8.1	23.2
(백만TOE)	(2.8)	(0.5)	(2.8)	(2.9)	(-5.7)	(-0.4)	(7.8)	(5.9)	(7.2)
합 계	164.0	45.8	38.9	37.8	43.5	166.0	47.5	40.2	87.6
(백만TOE)	(2.2)	(1.6)	(2.1)	(2.9)	(-1.3)	(1.2)	(3.6)	(3.2)	(3.4)
도시가스	14,734	6,292	3,167	2,017	3,943	15,420	6,951	3,436	10,387
(백만m ³)	(6.2)	(5.9)	(7.4)	(6.4)	(-0.1)	(4.7)	(10.5)	(8.5)	(9.8)
석유	722.7	190.4	169.9	170.0	189.0	719.3	193.9	173.5	367.4
(백만bbl)	(0.0)	(-0.2)	(0.8)	(1.7)	(-3.6)	(-0.5)	(1.8)	(2.2)	(2.0)
전력	293.6	80.2	75.3	78.5	78.1	312.1	84.8	80.0	164.7
(TWh)	(5.4)	(5.6)	(6.0)	(9.4)	(4.3)	(6.3)	(5.7)	(6.1)	(5.9)
석탄	34,779	8,451	8,203	8,309	9,286	34,248	8,351	7,863	16,214
(천톤)	(4.6)	(-3.2)	(-2.2)	(-2.1)	(1.2)	(-1.5)	(-1.2)	(-4.1)	(-2.6)
열 및 기타	4,511	1,532	1,166	1,022	1,552	5,271	1,872	1,447	3,319
(천TOE)	(8.7)	(13.6)	(21.0)	(21.5)	(14.3)	(16.9)	(22.2)	(24.1)	(23.0)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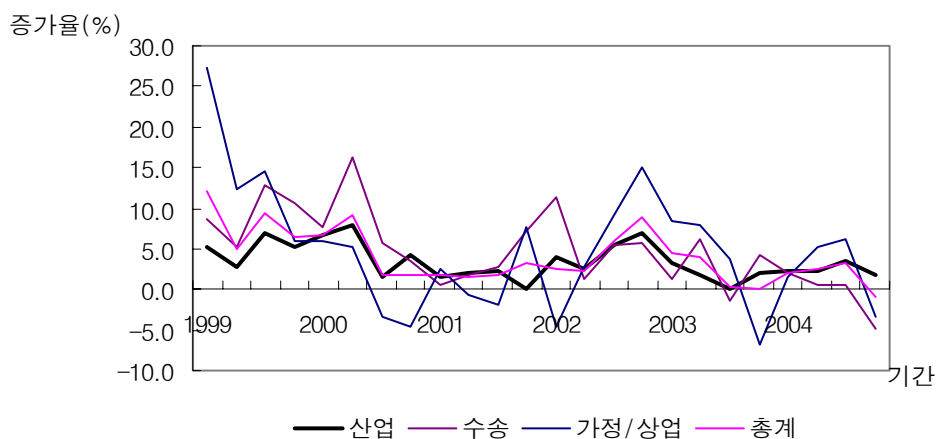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생산활동 부진에 따라 1/4분기와 2/4분기 각각

2.0% 증가에 그침. 상반기 중 산업부문 석유소비는 비에너지유 소비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나 연료유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가스 및 전력 소비가 전년대비 각각 7.3%와 4.4% 증가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를 주도한 반면 유연탄과 무연탄 소비는 각각 3.2%와 12.4% 감소함

□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를 보면 도시가스는 열 및 기타에너지는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인 반면 석탄 소비는 감소함

- 상반기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함. 상업용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
- 도시가스 소비는 1/4분기 10.5%, 2/4분기 8.8% 증가하는 등 상반기 전체로는 9.8% 증가. 난방도일의 증가, 전년 동기의 낮은 증가율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석유 소비는 2004년 하반기 1.2%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는 2.0% 증가로 반전됨. 그러나 이는 원료유 소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연료유만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

[그림 1-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율 추이



□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 기여도

-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증가 기여율을 보면 전력과 도시가스의 기여율이 지속적이고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석유와 석탄은 기복이 심함. 이는 석유와 석탄의 경우 특정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때문으로 판단됨
- 주목할만한 점은 2004년 이후 기타에너지의 기여율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임

〈표 1-4〉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증가 기여율 및 기여도

(기여율 : %, 기여도 : %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상
소비증가기 여율	도시가스	30.2	23.5	17.0	25.5	35.8	33.7
	석유	11.4	-7.7	37.4	-0.1	-31.8	29.0
	전력	32.1	50.5	23.8	36.8	79.0	27.4
	석탄	19.9	22.1	14.6	27.7	-20.6	-11.7
	유연탄	11.5	1.3	9.1	14.6	-14.5	-10.3
	무연탄	8.3	20.8	5.5	13.0	-6.1	-1.3
	열에너지	1.8	1.0	1.0	2.2	2.1	3.7
	기타	4.8	10.5	6.3	8.0	35.6	17.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증가기 여도	도시가스	1.4	0.5	0.8	0.6	0.4	1.1
	석유	0.5	-0.2	1.8	0.0	-0.4	1.0
	전력	1.5	1.0	1.2	0.8	1.0	0.9
	석탄	0.9	0.5	0.7	0.6	-0.3	-0.4
	유연탄	0.5	0.0	0.4	0.3	-0.2	-0.4
	무연탄	0.4	0.4	0.3	0.3	-0.1	0.0
	열에너지	0.1	0.0	0.0	0.0	0.0	0.1
	기타	0.2	0.2	0.3	0.2	0.4	0.6
	총계	4.7	2.1	4.9	2.2	1.2	3.4

- 부문별 기여율을 보면 산업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04

년의 경우 산업부문의 증가 기여율이 108.6%로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는 산업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 -5〉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 기여율 및 기여도

(기여율 : %, 기여도 : %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상
소비증가 기여율	산업	59.3	40.1	53.9	45.3	108.6	32.1
	수송	33.9	31.1	24.7	24.5	-0.9	14.2
	가상공	6.8	28.8	21.4	30.1	-7.8	5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증가 기여도	산업	2.8	0.8	2.6	1.0	1.3	1.1
	수송	1.6	0.6	1.2	0.5	0.0	0.5
	가상공	0.3	0.6	1.1	0.7	-0.1	1.8
	합계	4.8	2.1	4.9	2.2	1.2	3.4

3. 석유제품 소비 동향

□ 2005년도 상반기는 국제유가의 강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도감소에서 반등하여 전년보다 2.7% 증가한 387.4 백만 bbl을 기록하였음.

- 1/4분기에는 산업부문 연료소비를 제외하고 전부문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부문 원료와 전환부문의 소비 증가가 전체 석유소비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음.
- 2/4분기에는 전환과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산업부문 원료 소비가 지속되고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하여 1.9%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표 I -6〉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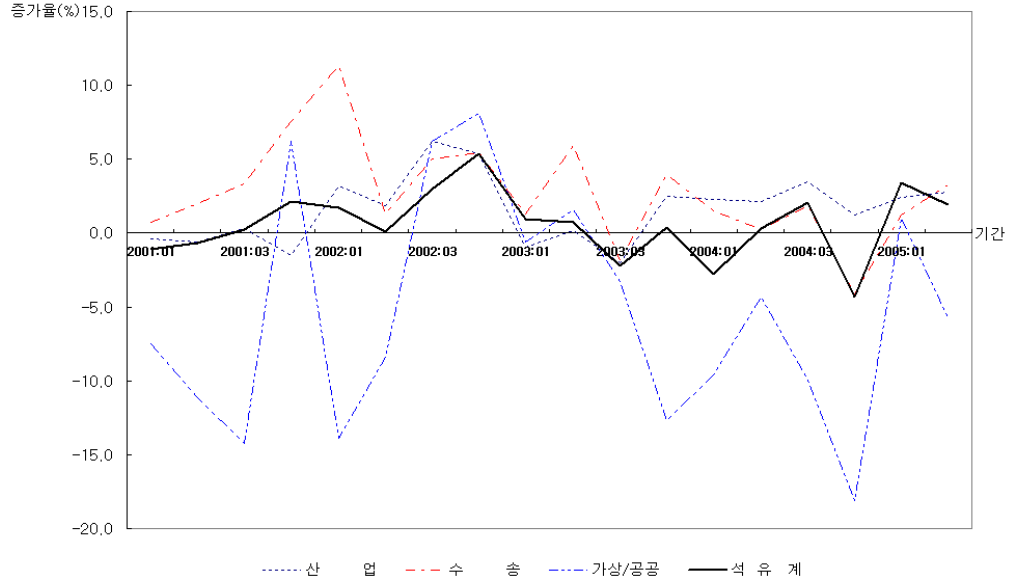
(단위: 백만 bbl)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p	2/4p	상반p
수 송	249.6 (2.3)	59.8 (1.5)	63.4 (0.2)	63.5 (1.8)	62.4 (-4.1)	249.1 (-0.2)	60.6 (1.3)	65.5 (3.2)	126.1 (2.3)
산 업	374.7 (-0.1)	97.7 (2.3)	90.8 (2.1)	93.6 (3.5)	101.0 (1.2)	383.1 (2.2)	100.1 (2.4)	93.3 (2.8)	193.3 (2.6)
- 연료	97.2 (-9.3)	25.7 (-3.8)	22.1 (-1.2)	20.5 (-2.4)	24.2 (-10.7)	92.5 (-4.8)	24.1 (-6.1)	20.6 (-6.8)	44.7 (-6.4)
- 원료	277.5 (3.6)	72.0 (4.7)	68.6 (3.2)	73.1 (5.3)	76.8 (5.6)	290.6 (4.7)	75.9 (5.5)	72.7 (5.8)	148.6 (5.7)
가정·상업·공공	98.4 (-4.8)	32.9 (-9.6)	15.7 (-4.3)	12.9 (-10.0)	25.6 (-18.1)	87.1 (-11.5)	33.3 (1.0)	14.8 (-5.8)	48.0 (-1.2)
전 환	40.3 (-0.7)	10.2 (-34.6)	6.7 (-9.4)	6.2 (12.2)	9.9 (-15.6)	33.0 (-18.0)	13.5 (33.0)	6.4 (-3.8)	20.0 (18.4)
석 유 계	762.9 (0.0)	200.6 (-2.8)	176.6 (0.3)	176.2 (2.1)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387.4 (2.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부문별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산업부문 연료소비와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제품 소비에서만 나타났고, 산업부문 원료소비 증가세와 연료소비 감소세는 지난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수송부문의 석유제품 소비는 금년 전반기 제품가격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음.
 - 산업부문 연료 수요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과 연료 대체로 인해 그동안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금년에는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이어져 전년대비 6.4%가 감소됨. 이에 비해 산업부문 원료 수요는 금년에도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여 산업부문 전체 석유수요는 2.6% 증가함.

[그림 1-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 지속적인 석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 도시가스 등이 석유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금년 1/4분기는 난방도일 증가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음.

- 전환부문 석유제품 소비는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평택화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1/4분기 석유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원전의 유지보수가 끝나고 전면 가동됨에 따라 2/4분기에는 3.8% 감소하였음.

□ 주요 제품별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석유 소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납사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휘발유 또한 제품가격 인상률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비가 반등하였음.

- 휘발유 수요는 세금조정에 따른 상대가격 하락과 가격 인상률이 둔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2003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수송용 경유 수요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세금조정으로 인해 경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등·경유(수송경유 제외) 수요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가정·상업·공공 부문 및 산업부문 모두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이어져 감소세를 지속되었으나 금년 1/4분기 난방도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중유 수요는 평택화력 발전소의 보수 완료로 발전용 중유소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원전 가동의 영향과 산업부문 중유소비의 감소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에 그침.
- 납사 소비는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호조로 전년의 증가세가 더욱 강하게 이어져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음.
- LPG 소비는 1/4분기 4.9%가 증가하였으나 2/4분기 4.8%가 감소함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는 0.2%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표 1-7〉 주요 석유제품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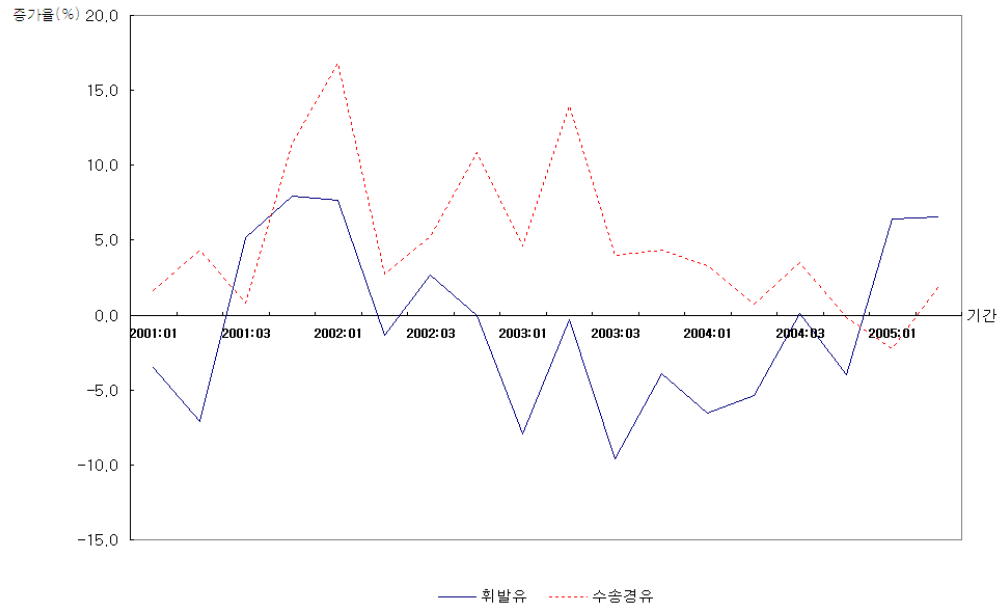
(단위: 백만 bbl)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p	2/4p	상반기
휘 발 유	60.5 (-5.6)	13.4 (-6.6)	14.1 (-5.4)	15.9 (0.1)	14.7 (-4.0)	58.1 (-3.9)	14.3 (6.4)	15.1 (6.6)	29.3 (6.5)
수송경유	110.1 (6.7)	26.5 (3.3)	29.7 (0.7)	26.8 (3.5)	29.0 (-0.2)	112.0 (1.8)	25.9 (-2.2)	30.3 (1.9)	56.2 (-0.0)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88.1 (-5.6)	28.2 (-17.8)	13.0 (-3.8)	11.0 (-14.8)	22.6 (-17.4)	74.8 (-15.1)	26.4 (-6.4)	11.9 (-8.6)	38.3 (-7.1)
중 유 (발전용 포함)	115.8 (-4.7)	31.5 (-6.8)	23.8 (-8.3)	21.8 (-6.6)	27.9 (-14.8)	105.0 (-9.4)	32.9 (4.6)	22.8 (-4.1)	55.7 (0.9)
납 사	252.4 (2.9)	66.3 (3.5)	61.4 (2.0)	66.7 (5.3)	68.5 (5.6)	262.9 (4.1)	70.6 (6.5)	65.7 (7.1)	136.3 (6.8)
L P G (발전용 포함)	88.6 (-3.1)	23.3 (-3.1)	21.8 (5.9)	20.6 (4.8)	22.6 (-6.6)	88.4 (-0.2)	24.5 (4.9)	20.8 (-4.8)	45.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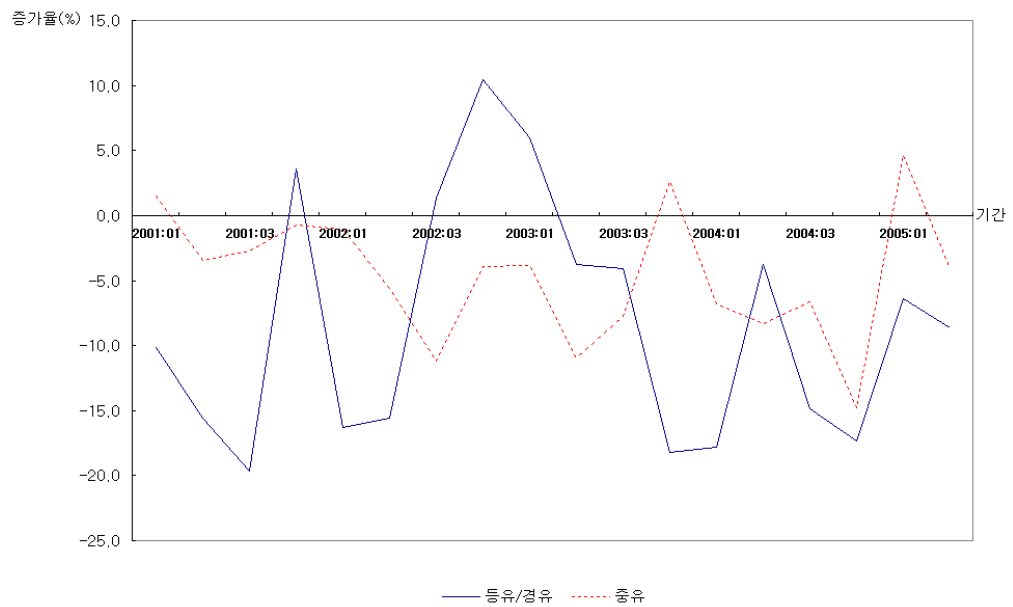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소비량의 합.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그림 1-4]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그림 1-5]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4. 전력 소비 동향

- 2005년 상반기 전력소비는 164.7TWh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함
- 200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함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는 6.1%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는 상업용이 1/4분기 8.1%, 2/4분기 8.2%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력소비를 주도함. 반면 산업용 소비는 상반기 중 4.4% 증가에 그침

〈표 1-8〉 전력소비 동향

(단위 : TWh)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p	상반기
가정용	44.6 (5.4)	11.6 (9.1)	10.8 (7.2)	11.3 (5.3)	10.8 (0.3)	44.6 (5.4)	13.2 (5.7)	12.2 (5.9)	25.4 (5.8)
상업용	98.6 (7.5)	27.3 (11.6)	22.8 (8.0)	23.7 (5.0)	24.9 (5.4)	98.6 (7.5)	31.4 (8.1)	26.3 (8.2)	57.7 (8.1)
산업용	150.4 (4.1)	37.0 (7.1)	37.5 (3.7)	36.7 (1.7)	39.1 (4.1)	150.4 (4.1)	40.2 (3.9)	41.5 (4.9)	81.6 (4.4)
총계	293.6 (5.4)	75.9 (9.0)	71.1 (5.6)	71.7 (3.3)	74.9 (3.9)	293.6 (5.4)	84.8 (5.7)	80.0 (6.1)	164.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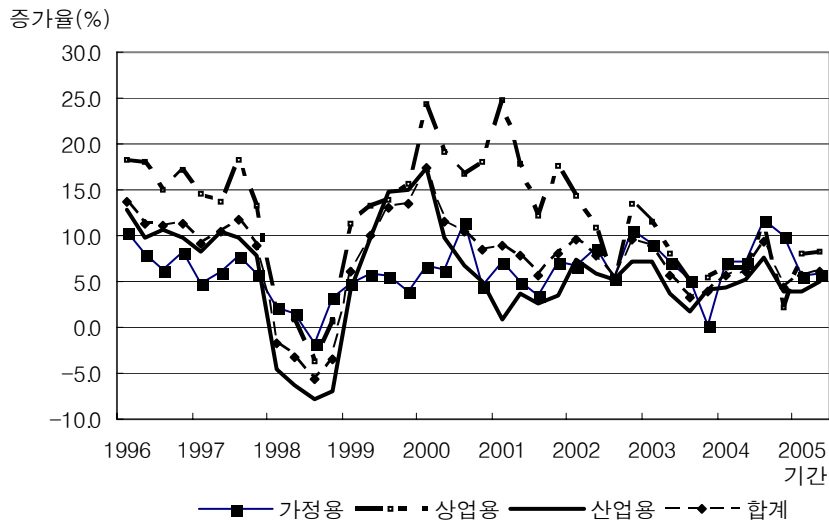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2/4분기 총계는 잠정치이나 부문별 소비는 추정치임

- 2005년 상반기 상업용 전력 소비는 8.1%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세를 주도함
- 가정용 전력소비는 1/4분기 5.7%, 2/4분기 5.9% 증가하여 안정적인 증

가세를 지속함

- 산업용 전력수요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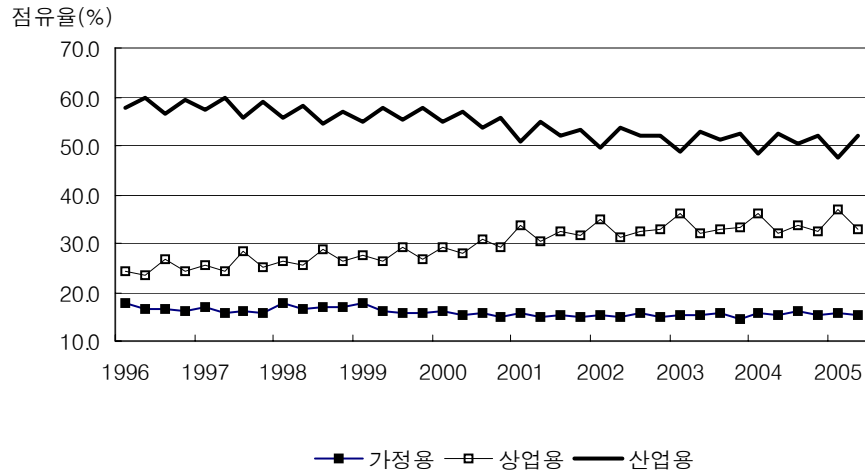
[그림 1-6]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은 상업용은 상승하고 산업용의 비중은 하락함

- 전체 전력소비 중 상업용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2.1%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은 33.8%까지 높아졌으며, 2005년에도 상반기 전체로는 34.3%까지 비중이 확대됨
- 가정용 전력소비의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에 소폭 증가하고 1999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00년대 들어서는 15% 초반의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4년에 15.4%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도 15.4% 수준을 유지
-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51.2%, 2004년은 50.8%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는 50.0%를 기록

〔그림 1-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 2005년 상반기의 최대부하는 50,603MW(6월24일)이었으며 평균부하는 40,986MW로 부하율은 81.0%를 기록함. 이는 2004년 상반기 83.2%보다 2.2% 포인트 낮은 결과임
- 2005년 월별 평균부하는 1월이 43,652MW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월의 순으로 나타남.
- 상반기 중 공급예비율은 9.1%로 10% 미만으로 하락

5. LN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 2004년 LNG 소비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21,809천 톤을 기록함
 - 분기별로는 1/4분기와 3/4분기에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4분기에는 10%대, 4/4분기는 9%대의 증가율을 보여 분기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이는 발전용 소비의 변화가 컸던데 따른 결과임
- 2005년 상반기 LNG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 1/4분기 LNG 소비는 4.7%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2/4분기에는 -11.2%의 감소세를 보였

는데 이는 울진 원전 5,6호기 설비가 가동되어 발전용 수요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함

- 원자력 발전의 경우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8.2%와 22.1%로 급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동분기의 LNG의 발전용 소비 증가율은 -6.8%와 -24.4%로 큰 감소세를 나타냄

□ 2004년 발전용 LNG 소비는 전년대비 36.3%의 급증세를 보임.

- 이와 같은 발전용 소비의 급증세는 1/4분기에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발전용 수요가 81.5%나 증가하였고 3/4분기의 고온 현상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임. 또한 전년 2/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한데 따른 상대적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1/4분기 발전용 LNG 소비는 전년대비 -6.8%, 2/4분기는 -24.4%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냄

- 울진 원전 5,6호기의 가동에 따라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5,507 GWh와 37,631 GWh로 전년 동기 대비 18.2%와 22.1%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전용 LNG 소비의 감소가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결과이며 2004년 동분기 급증에 따른 상대적인 효과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표 I -9〉 LNG 소비 동향

(단위: 천톤)

	2003	2004					2005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p	2/4p	상반p
도시가스용	11,978 (7.0)	4,999 (5.3)	2,169 (8.0)	1,577 (5.9)	3,759 (0.7)	12,504 (4.4)	5,623 (12.5)	2,268 (4.6)	7,891 (10.1)
발 전 용	6,468 (-0.6)	2,729 (81.5)	2,137 (15.7)	1,839 (31.7)	2,113 (22.7)	8,818 (36.3)	2,545 (-6.8)	1,616 (-24.4)	4,161 (-14.5)
L N G 계	18,610 (4.7)	7,896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09 (17.2)	8,263 (4.7)	3,905 (-11.2)	12,169 (-1.0)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2. LNG계는 자체소비가 포함된 1차 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3.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 및 자가발전 LNG 투입량도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1/4분기 도시가스용 LNG소비는 기후 요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12.5%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5년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1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기온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매우 낮았던 데에 기인함
 - 또한 2005년에 접어들면서 낮아진 도시가스 가격도 수요 증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됨
- 2004년 도시가스 소비는 15,420백만 m^3 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에 그쳐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증가율 수준을 보여줌
- 2004년 도시가스 소비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른 위축된 경제활동의 영향과 4/4분기의 온난한 기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4/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 2005년 1/4분기와 2/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각각 10.5%, 8.5%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줌
- 2005년 1/4분기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

타내었으며 2/4분기 역시 2004년 2/4분기 7.4%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도시가스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고려됨

〈표 I-10〉 도시가스 소비 동향

(단위: 백만 m^3)

	2003	2004					2005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p	2/4p	상반p
가 정 용	8,126 (5.3)	3,945 (4.0)	1,629 (4.8)	541 (-6.7)	2,103 (-4.3)	8,218 (1.1)	4,266 (8.1)	1,736 (6.5)	6,002 (7.7)
상 업 용	2,437 (10.4)	1,034 (12.8)	501 (14.1)	529 (17.6)	654 (3.7)	2,718 (11.5)	1,265 (22.3)	581 (16.0)	1,847 (20.3)
산 업 용	3,978 (4.8)	1,223 (4.9)	964 (5.6)	873 (6.4)	1,113 (3.1)	4,174 (4.9)	1,325 (8.3)	1,023 (6.1)	2,348 (7.3)
도시가스계	14,734 (6.2)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36 (8.5)	10,387 (9.8)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2. 도시가스계에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2004년 가정부문의 도시가스 소비는 1.1% 증가에 그쳤으나 상업부문의 소비는 1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도시가스 증가를 주도.

-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는 상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고온 현상으로 3/4분기와 4/4분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됨
-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4/4분기를 제외하고는 1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줌
-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4/4분기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졌으나 전반적으로 5%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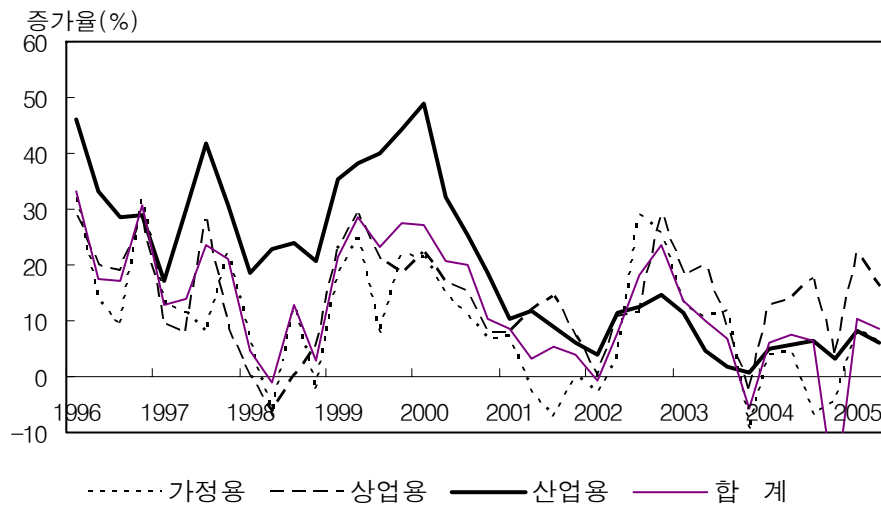
□ 2005년 1/4분기와 2/4분기 각 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는 1/4분기 8.1%, 2/4분기 6.5%로 도시가스 소비

증가율의 회복세를 보였는데 1/4분기의 기온 하락과 2005년에 접어들면서 도시가스 요금의 하락이 주 요인으로 판단됨

-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1/4분기 22.3%, 2/4분기 16.0%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두 분기에서 모두 25% 이상의 수요가수 증가와 요금 및 기후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1/4분기와 2/4분기 각각 8.3%와 6.1%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4분기와 2/4분의 산업 활동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04년에 약 10%의 수요가수가 증가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17%의 높은 수요가수 증가가 이루어진 데 기인.

[그림 1-8]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11,105 천개에 이름

- 가정용의 경우 증가세가 많이 안정화 되어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용은 여전히 2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연료대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 2005년 상반기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4,007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유연탄 소비는 0.9% 증가한 반면 무연탄 소비는 4.7% 감소하였음.

-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석탄 소비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표 1-11〉 석탄 소비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상반기
무연탄계	8,581 (11.6)	2,145 (-7.2)	1,735 (-11.1)	1,907 (6.1)	2,351 (-6.7)	8,137 (-5.2)	2,109 (-1.7)	1,587 (-8.5)	3,696 (-4.7)
가정·상업	1,191 (1.3)	340 (-9.8)	117 (6.4)	(160) (14.3)	768 (36.2)	1,385 (16.3)	539 (58.5)	178 (52.1)	717 (56.9)
산업	4,680 (18.4)	1,122 (-12.7)	941 (-10.7)	1,152 (8.2)	1,182 (-7.4)	4,396 (-6.1)	1,053 (-6.2)	761 (-19.1)	1,814 (-12.1)
발전	2,710 (5.9)	683 (5.2)	677 (-14.1)	595 (0.3)	401 (-41.0)	2,356 (-13.1)	517 (-24.3)	648 (-4.3)	1,165 (-14.3)
유연탄계	70,539 (3.3)	18,284 (5.4)	17,753 (2.7)	18,540 (5.0)	19,402 (6.3)	73,978 (4.9)	17,942 (-1.9)	18,428 (3.8)	36,370 (0.9)
제철	20,509 (2.0)	5,168 (2.5)	5,162 (1.6)	5,198 (0.0)	5,311 (2.4)	20,839 (1.6)	5,092 (-1.5)	4,975 (-3.6)	10,067 (-2.5)
시멘트	6,060 (6.9)	1,184 (-15.5)	1,457 (-9.4)	1,253 (-18.2)	1,415 (-6.9)	5,309 (-12.4)	1,033 (-12.8)	1,398 (-4.0)	2,431 (-7.9)
기타산업	2,339 (-0.7)	636 (1.8)	527 (-1.0)	547 (-1.9)	609 (-2.6)	2,318 (-0.9)	633 (-0.5)	551 (4.6)	1,184 (1.8)
발전	41,631 (3.7)	11,296 (9.9)	10,607 (5.4)	11,542 (11.4)	12,067 (10.5)	45,512 (9.3)	11,184 (-1.0)	11,504 (8.5)	22,688 (3.6)
석탄계	79,120 (4.2)	20,430 (3.9)	19,487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1 (-1.9)	20,015 (2.7)	40,067 (0.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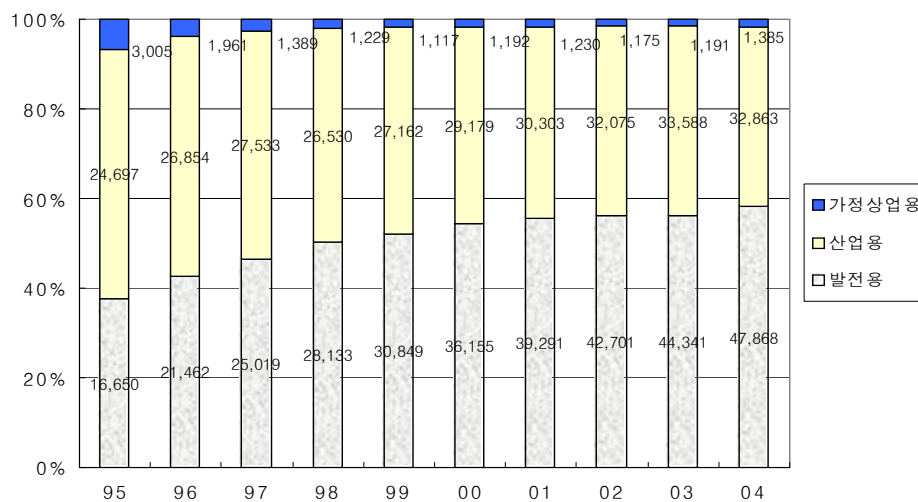
- 2005년 1/4분기 석탄소비는 가정·상업용 무연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9%의 소비감소율을 기록하였음. 1/4분기에 유연탄은 1.9%, 무연탄은 1.7% 감소하였음.
- 2005년 2/4분기의 석탄소비는 발전용 유연탄과 가정·상업용 무연탄의 소비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7%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특히,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가 대체연료(등유)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 효과로 인하여 크게 늘어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임.

□ 석탄소비를 용도별로 보면, 2004년 기준 전체 석탄소비의 59.2%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용 소비가 2005년 상반기에 2.5% 증가한 반면, 최종부문의 소비는 2.6% 감소하였음.

- 발전용의 소비비중은 전력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1-9] 용도별 석탄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천TOE)



□ 2005년 상반기의 무연탄 소비는 가정·상업용 소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56.9% 증가), 산업용 및 발전용 소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하였음.

- 발전용 무연탄 소비는 2004년 4/4분기의 감소(-41.0%)에 이어 2005년 상반기에도 14.3% 감소하였음. 특히 1/4분기에는 24.3%의 높은 소비감소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원전 올진 5, 6호기가 각각 2004년 하반기, 2/4분기에 신규 가동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상반기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56.9% 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경기둔화 지속 및 등유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서민용 연료로서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소비 증가추세는 고유가 지속과 함께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산업용 무연탄 소비는 2004년에는 6.1% 감소한데 이어 2005년 상반기에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의 상반기 유연탄 소비는 발전용 소비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철용 및 시멘트 제조용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 2005년 상반기의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2004년 하반기 설비증설(영흥석탄 1·2호기, 1,600MW)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였음. 1/4분기에는 소비가 1.0%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2.5% 감소하였음.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2고로가 개보수로 인하여 1/4~2/4분기에 걸쳐 총 66일간 가동이 중지된데 크게 기인함.¹⁾ 또한 포스코가 세계 철강경기 상황

1) 광양제철소 2고로는 2005년 3월14일부터 66일간 개수작업을 마치고 5월20일부터 조업에 들어감. 2고로는 개수작업을 통하여 설비능력이 15% 확대되었으며, 연간 생산

을 고려하여 고급강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전략도 제철용 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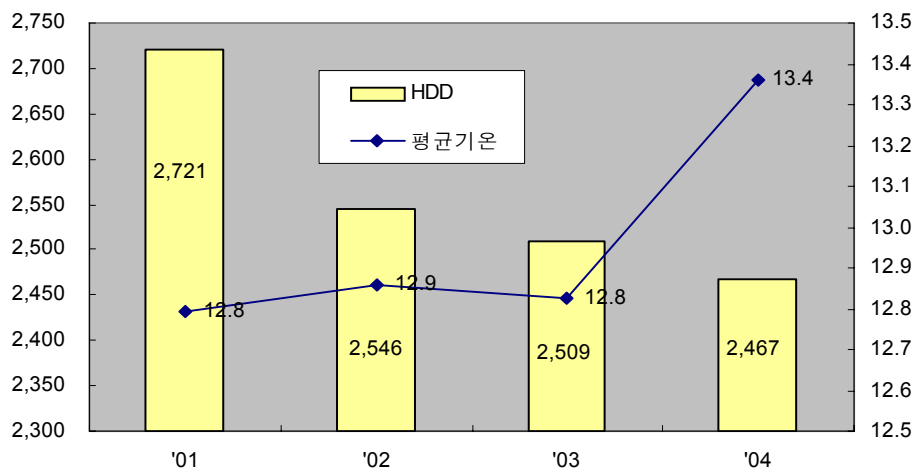
- 2005년 상반기의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는 7.9% 감소하였음. 이는 국제 석탄가격 급등 및 시멘트제품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1/4분기에는 12.8 감소하였으며, 2/4분기에는 -4.0%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음.
- 주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기타산업용 유연탄은 2005년 상반기에 1.8% 증가하였음.

□ 열에너지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하였음. 이는 2005년 1/4분기의 소비가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전년 1/4분기에 비해 15.8%로 크게 반등한데 따른 것임.

- 열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상업용 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공공·기타용은 21.4%나 증가하였음.

[그림 1-10]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추이

(단위: 1hdd, °C)



량이 종전보다 45만 톤 늘어난 3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상반기의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한 239만 TOE를 기록하였음.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가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5%에서 2004년에는 1.8%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신재생/기타에너지 소비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증가, 발전차액제도와 공공부문 의무화제도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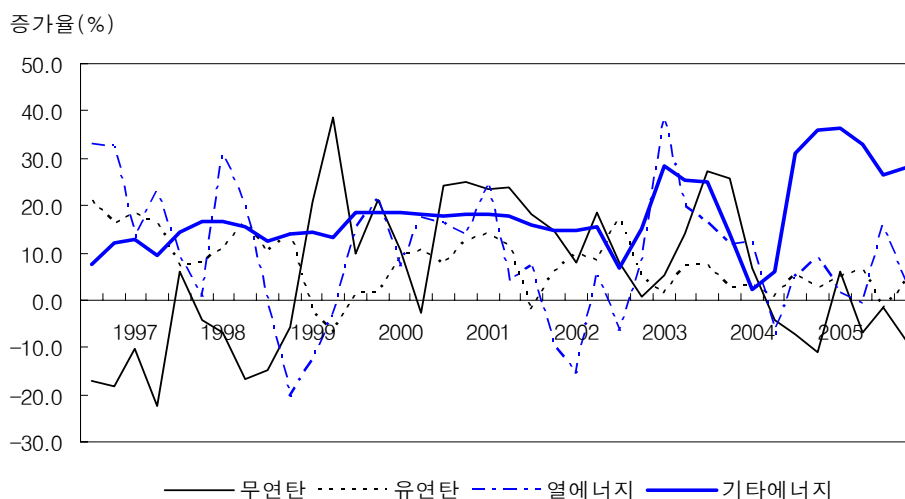
〈표 1-12〉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천TOE)

구 분	2003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상반p
열에너지	1,300 (6.3)	632 (4.8)	186 (9.0)	83 (1.4)	442 (-0.7)	1,343 (3.3)	732 (15.8)	193 (3.5)	924 (13.0)
신재생/기타	3,241 (10.8)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2,394 (25.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그림 1-11〕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II.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의 경제동향

□ 개요

- 통계청의 2005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산업활동은 생산과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감소
- 6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4.4% 증가하였고 도소매 판매도 3.0%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2.8% 감소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감소하였으며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 생산

- 6월 산업생산지수는 131.9(2000=100)로 사무회계용기계, 조립금속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4.0% 증가
- 6월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30.3(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2/4분기로는 3.5% 증가함. 내수출하는 2.0% 증가하였으며 수출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로 8.2% 증가, 2/4분기로는 6.7% 증가
- 6월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4.5(2000=100)로 제1차금속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사무회계용기계 등에서 감소하고 반도체(28.2%→9.1%), 화학제품(16.0%→9.0%) 등의 증가세 둔화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7.6%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하여 3.0% 감소

〈표 II-1〉 최근의 경제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6월	4/4	연간	1/4	2/4p	4월	5월p	6월p
생산	생 산		12.9	6.7	10.4	3.8	4.0	3.9	4.2	4.1
	· 제 조 업		13.3	7.0	10.7	3.5	3.9	3.7	4.1	4.1
	(중 화 학)		16.7	9.4	14.0	6.1	5.6	5.8	5.5	5.4
	(경 공 업)		0.9	-2.2	-0.8	-6.5	-2.9	-4.7	-2.1	-1.9
	출 하		11.0	5.8	9.1	3.5	3.5	2.8	3.5	4.4
	· 내 수		5.4	0.3	2.9	-1.2	1.4	-0.4	2.9	2.0
	· 수 출		20.7	15.0	20.0	10.9	6.7	7.7	4.3	8.2
	재 고		3.0	9.4	9.4	9.4	7.6	12.0	10.3	7.6
	평균가동률		79.8	80.4	80.3	80.0	78.9	78.8	78.0	80.0
생 산 능 력		5.7	4.8	4.8	3.6	2.3	2.2	2.3	2.3	
소비	도 · 소매판매		1.2	-1.4	-0.9	-1.0	2.7	1.3	3.7	3.0
	내수용소비재출하		-1.0	-4.0	-2.4	-5.0	1.3	-3.6	2.7	5.0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5	0.1	1.4	4.0	1.5	-0.2	7.7	-2.8
		국내기계수주	18.9	-5.4	6.8	-6.8	-12.2	-10.0	-14.4	-12.1
	건설	국내건설기성	8.2	4.4	11.0	2.8	10.1	8.2	11.1	11.1
		국내건설수주	-34.7	28.8	-5.3	24.8	40.5	29.1	53.9	38.0
물가	소비자물가		3.6	3.4	3.6	3.1	3.0	3.1	3.1	2.7
	생산자물가		6.8	6.5	6.1	3.3	2.2	2.9	2.0	1.6
경기	동행지수(전월비, %)							-0.3	0.7	0.3
	· 순 환 변 동 치							96.4	96.6	96.3
	· 순환변동치전월차(p)							-0.8	0.2	-0.3
	선행지수(전월비, %)		-	-	-	-	-	-0.3	0.3	0.4
	· 전년동월비(%)							1.1	1.3	1.6
	· 전 월 차(%p)							-0.4	0.2	0.3

주) 재고는 월(기)말기준, p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005. 7

통계청, 200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5. 7

한국은행, 2005년 6월 생산자물가 동향, 2005. 7

- 6월 가동률지수는 103.3(2000=100)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반도체, 제1차금속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2/4분기로는 1.0% 감소. 전월에 비해서는 기계장비,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하여 2.6% 증가
-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2.0%p 증가한 80.0%을 나타냄. 생산능력지수는 118.4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투자

- 6월 설비투자는 105.8(2000=100)로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2/4분기로는 1.5% 증가
- 기계류내수출하는 기계장비, 컴퓨터 및 자동차 등의 출하가 감소하여 3.5% 감소, 2/4분기로는 1.3% 감소
- 6월 국내 기계수주(경상금액)는 민간발주는 증가하였으나, 공공발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 2/4분기로는 12.2% 감소함. 공공부문은 전력업과 공공운수업에서 각각 발전용엔진 및 고압차단기 등의 발주가 감소하여 67.4%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영상음향통신, 제1차금속 및 자동차 등에서 정지형변환기, 크레인 및 차량용에어컨 등의 발주가 증가하여 1.2% 증가
- 6월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공공 및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2/4분기로는 10.1% 증가.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사는 주거용건축의 호조로 10.8%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일반토목공사 등이 증가하여 11.7% 증가
- 6월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0% 증가, 2/4분기로는 40.5% 증가함. 공공부문은 관공서·병원, 사무실 및 철도·궤도 등의 발주가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주택, 공장·창고 및 사무실 등의 발주가 증가

□ 소비

- 도소매업판매액지수(불변)는 116.8(2000=100)로 모든 업종에서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2/4분기로는 2.7% 증가함.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는 차량용 연료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판매와 부품 및 부속품에서의 판매호조로 4.8% 증가
- 도매업은 기타식료품 및 담배, 비알콜음료,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사무회계용기기, 기타산업용중간재, 건축재료 등에서 판매가 늘어 3.1% 증가함. 소매업은 기타종합소매, 음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대형할인점, 의복, 의약품 및 의료용품, 무점포소매 등에서 판매가 늘어 1.8% 증가
- 생산자의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104.2(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2/4분기로는 1.3% 증가함. 내구소비재는 휴대용전화기, 영상반주기 등은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FPD TV 등에서 증가하여 14.4% 증가하였고 비내구소비재는 담배, 등유 등은 감소하였으나 남녀기성복, 의약품 등에서 증가하여 0.7% 증가

□ 경기종합지수

- 6월 동행종합지수는 도소매판매액지수, 산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3% 증가.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3으로 전월보다 0.3p 감소
- 6월 선행종합지수는 자본재수입액, 총유동성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4% 증가. 향후의 경기전환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1.6%로 전월에 비해 0.3%p 증가

나. 국내경제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2005. 7)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내수가 회복되는 반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에 3%대 후반을 기록

할 전망이다.

-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건설투자도 감소함에 따라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는 한편 건설투자도 증가로 반전되고 수출증가세 둔화도 다소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표 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 동기대비, %)

	2004년p	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경제성장률	4.6	2.7	3.4	4.3	4.6	3.8
총소비	0.2	1.7	2.9	3.6	4.2	3.1
- 민간소비	-0.5	1.4	2.8	3.6	4.3	3.0
총고정투자	1.9	0.1	2.2	4.1	6.2	3.3
- 설비투자	3.8	3.1	5.2	8.1	9.0	6.3
- 건설투자	1.1	-2.9	0.2	1.5	4.6	1.2
경상수지(억달러)	276	60	29	30	21	139
총수출(물량)	19.7	7.4	7.0	10.0	7.1	7.8
총수입(물량)	13.8	5.2	6.0	10.8	9.7	8.0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2	3.0	2.5	3.5	3.0
실업률	3.5	3.9	3.4	3.5	3.5	3.6

주) p는 잠정치, e는 예측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5. 2/4), 2005. 7

□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의 마무리 및 고용상황의 점진적 개선에 기인하여 2005년에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 민간소비는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가계신용 조정 등 소비 위축요인의 점진적 해소에 기인하여 2%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됨. 하반기에는 고용사정 개선과 함께 소득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투자

- 설비투자는 소비회복,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 6%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유가상승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 및 소비회복 등에 기인하여 상반기(4%대)보다 높은 8%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작년 이후의 건설경기 하락세가 하반기에 증가로 반전되면서 2004년(1.1%)과 비슷한 1%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2004년 말 이후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이 반등하고 있어 통상적인 시차를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설투자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원화가치 상승이 부분적으로 상쇄하면서 2004년(3.6%)에 비해 하락한 3.0%를 기록하고,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수입물가 하락 및 서비스가격의 안정에 따라 2004년(2.9%)보다 낮은 수준인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4년 하반기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2005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2004년(382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3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달러금액)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단가의 낮은 증가율에 기인하여 2004년(30.6%)보다 크게 하락한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수입(달러금액)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유가상승에 기인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6%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내수회복,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2004년(276억 달러)보다 축소된 1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주요기관의 국내 경제전망

- 국내 주요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결과를 보면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3.8%~4.0% 수준으로 2004년(4.6% 잠정)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3.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2004년(3.6%) 보다는 안정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3%대 중반으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2005년에 유가상승, 내수회복,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2004년(276억 달러)보다 축소된 1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표 II-3〉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단위: %)

구 분	KDI	한국은행	한국경제연	산업연구원
성장률	3.8	3.8	4.1	4.0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0	3.2	-
실업률	3.6	-	3.6	-
경상수지(억불)	139	130	188	232 ^{주)}

주) 상품수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5. 2/4), 2005. 7

한국은행,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2005. 7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5. 6

산업연구원,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2005. 7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 유가 동향

- DUBAI 국제유가는 2005년 1월 3일 34.26\$/bbl 수준에서 7월 29일 53.81\$/bbl를 기록, 연초 대비 약 57.1% 상승함.
- 국제유가는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완만한 하락세였으나 이란대선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감 가중, 하반기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5월 중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때이른 허리케인의 여파에 따른 미 멕시코만의 생산차질로 WTI 및 Brent 가격이 7월초 \$60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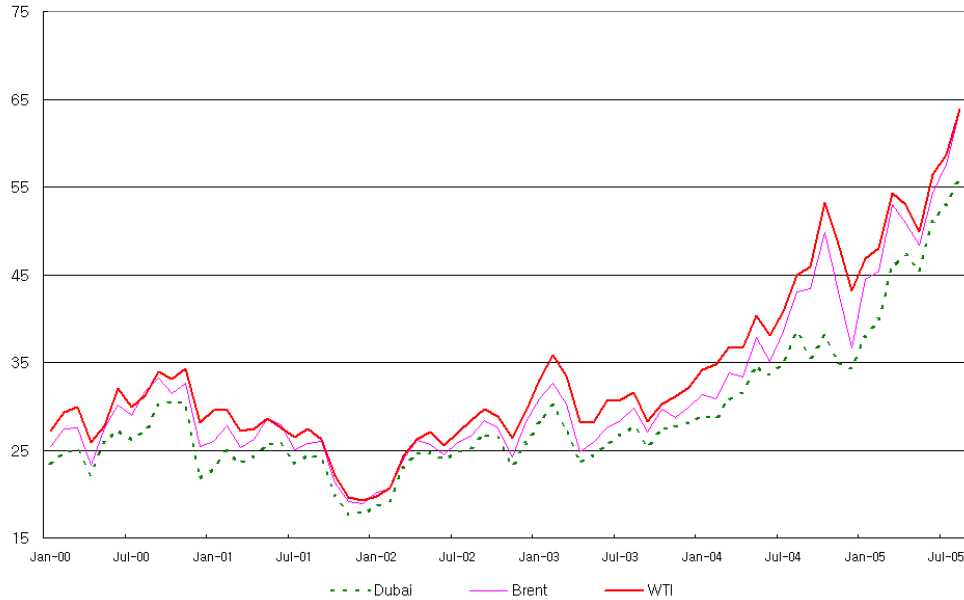
〈표 II-4〉 2005년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단위: \$/Bbl)

구 분	WTI		Brent		Dubai	
2005년 1월	46.84	(36.8)	44.44	(41.8)	37.97	(31.6)
2005년 2월	47.96	(38.1)	45.37	(46.9)	39.91	(39.4)
2005년 3월	54.27	(47.8)	52.96	(56.6)	45.85	(49.0)
2005년 4월	52.94	(44.2)	50.9	(52.4)	47.21	(49.7)
2005년 5월	49.91	(23.9)	48.33	(27.7)	45.41	(31.0)
2005년 6월	56.38	(48.3)	54.29	(54.7)	51.06	(52.2)
2005년 7월	58.68	(43.8)	57.66	(49.7)	52.84	(52.1)

주) ()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그림 II-1]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나.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7월 발표된 IEA의 “석유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세계석유수요 실적은 8,229만 b/d로 전월보다 소폭하향 조정되었음.
- 2005년도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는 이전 전망치 보다 41만 b/d 감소한 8,388만 b/d로 전망. 전년대비 연간 석유수요는 중국과 미국의 전망치 감소로 20만 b/d 감소한 158만 b/d로 하향 조정하였음.
- 비OPEC의 공급은 2005년 5,098만 b/d 수준을 유지하고 200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5,239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OPEC의 경우 이라크의 원유 수출 재개와 나이지리아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UAE의 생산량 축소로 6월 평균 석유 생산량은 지난달 보다 6만 b/d 감소한 2,927만 b/d를 기록

〈표 II-5〉 IEA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 b/d)

구 분	2004년	2005년 (전망)					2006년 (전망)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OECD	49.5	50.5	48.4	49.6	50.9	49.9	50.8	48.8	50.1	51.3	50.3
북미	25.4	25.5	25.2	25.9	26.0	25.6	25.8	25.5	26.2	26.3	25.9
유럽	15.6	15.5	15.3	15.6	16.0	15.6	15.5	15.3	15.7	16.0	15.6
아태	8.5	9.5	8.0	8.2	9.0	8.6	5.5	8.0	8.3	9.1	8.7
비OECD	32.8	33.5	33.5	34.1	35.0	34.0	34.9	35.0	35.3	36.2	35.3
중국	6.4	6.6	6.5	6.9	7.2	6.8	7.0	7.1	7.4	7.7	7.3
아시아*	8.5	8.8	8.9	8.6	8.9	8.8	9.0	9.2	8.9	9.2	9.1
전세계	82.3	84.0	81.9	83.7	85.9	83.9	85.7	83.8	85.4	87.6	85.6

주) 아시아*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개도국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7월호

다. 국제 유가 전망

- 향후 하반기 유가는 비OPEC의 석유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석유재고 추이 및 소비동향, 허리케인 여부, 중동의 정정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II-6〉 7월 해외 주요기관 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기준	2005					2006년 평균
		1/4	2/4	3/4	4/4	평균	
CGES	Brent(D)	47.80	51.20	53.90	55.50	52.10	47.55*
CERA	Dubai	40.93	47.98	54.00	54.50	49.35	46.50
	Brent(D)	47.65	51.63	57.97	57.50	53.69	50.50
	WTI	49.88	53.08	59.17	59.00	55.28	52.00
EIA	WTI	49.77	53.05	59.17	58.50	55.12	57.50
PIRA	Brent	47.50	51.55	59.35	53.45	52.95	46.15
	WTI	49.70	53.05	60.55	55.00	54.55	47.65

*단, CGES의 2006년 유가전망은 상반기까지의 평균임

Ⅲ. 2005년 에너지 수요 전망

□ 예측을 위한 입력 전제인 거시 경제 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를 중심으로 사용하였음.

- 최근 정부 및 국내 민간 연구소들은 2005년 경기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04년에는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05년에는 성장률이 3.8% 내외로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 상반기는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4.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Ⅲ-1〉 경제전망

(전년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9.3	3.0	6.3	3.1	4.6	3.8
소비자물가	2.3	4.1	2.7	3.6	3.6	3.0

□ 기온은 1981년 이후의 월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24년간 평균 기온 정보를 이용하였음.

〈표 Ⅲ-2〉 평균기온 및 냉·난방도일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2.4	0.3	5.7	12.6	17.8	22.2	24.9	25.6	21.1	14.5	7.2	0.7
평균HDD	636.0	558.4	429.9	164.6	36.5	1.7	0.0	0.0	4.7	113.3	321.3	538.9
평균CDD	0.0	0.0	0.0	3.0	30.5	125.0	212.0	236.6	105.4	9.1	0.7	0.0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 2005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229.78만 TOE로 전망됨
- 2005년 경제성장률이 2004년(4.6%) 보다 다소 낮은 3.8%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004년보다 1.9%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는 1.132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을 넘어설 전망
 -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으나 총에너지 소비는 4.4%나 증가함.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5%로 상승할 전망이나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는 1 이하로 하락할 전망

〈표Ⅲ-3〉 총에너지 수요 전망

분기	2004					2005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석탄	20,430	19,478	20,446	21,753	82,116	20,052	20,015	21,070	22,278	83,414
(천톤)	(3.9)	(1.3)	(5.1)	(4.7)	(3.8)	(-1.8)	(2.7)	(3.0)	(2.4)	(1.6)
석유	200.6	176.6	176.2	199.0	752.3	207.4	180.0	178.8	202.1	768.3
(백만bbl)	(-2.8)	(0.3)	(2.0)	(-4.3)	(-1.4)	(3.4)	(1.9)	(1.5)	(1.6)	(2.1)
LNG	7,896	4,400	3,504	6,009	21,809	8,263	3,905	4,006	6,833	23,008
(천톤)	(24.6)	(13.4)	(21.0)	(9.3)	(17.2)	(4.7)	(-11.2)	(14.3)	(13.7)	(5.5)
수력	0.8	1.2	2.9	1.0	5.9	0.7	1.3	2.8	1.0	5.8
(TWh)	(-19.4)	(-33.1)	(-2.9)	(-13.8)	(-14.9)	(-8.3)	(5.8)	(-2.4)	(-4.2)	(-1.8)
원자력	30.1	30.8	35.5	34.3	130.7	35.5	37.6	37.2	37.4	147.7
(TWh)	(-7.9)	(8.8)	(3.1)	(0.2)	(0.8)	(18.2)	(22.1)	(4.6)	(8.9)	(13.0)
기타	911	992	953	1,121	3,977	1,140	1,254	1,093	1,292	4,779
(천TOE)	(20.8)	(24.0)	(24.4)	(21.8)	(22.7)	(25.2)	(26.4)	(14.7)	(15.2)	(20.2)
1차에너지	59.0	51.0	51.8	58.5	220.8	61.6	53.1	53.8	61.2	229.8
(백만TOE)	(2.0)	(3.1)	(4.6)	(0.3)	(2.4)	(4.5)	(4.2)	(3.8)	(4.7)	(4.3)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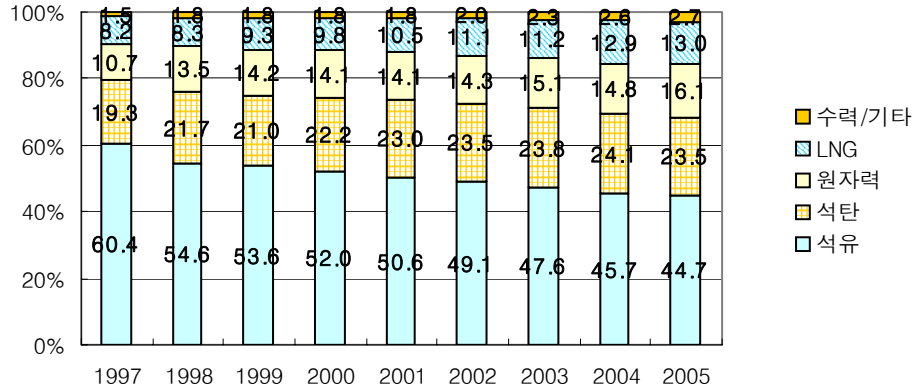
- 결국 금년의 에너지소비 GDP 탄성치가 1보다 크게 전망되나 이러한 현상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됨
- 2000년대 들어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국내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아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 또는 이상기온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은 낮음

□ 총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수력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 소비는 2005년 전년대비 2.1% 증가한 768.4백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됨.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석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2004년 증가율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와 비에너지유에 대한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LNG 소비는 2004년(17.4%)에 비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5.5% 증가한 23.0백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 급증에 따른 상대적 요인과 원자력 올진 5,6호기(1,000MW)가 가동됨에 따라 발전부문에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실제로 1/4분기 발전용 LNG 소비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4분기 LNG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1.2%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임. 원자력은 신규 원전 가동에 따라 전년 0.8% 증가에서 금년에는 1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석탄 수요는 발전용 수요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둔화(3.7%)되고 산업용 소비도 전년대비 2.1% 감소하여 가정·상업부문 무연탄 소비가 급증(35.9%)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에너지원별 소비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비중은 1998년 54.6%로 크게 낮아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은 45.7%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더욱 낮아져 44.7%에 그칠 전망이다. 이렇듯 석유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은 유가상승 및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최종 수요부문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 등 타 에너지원으로 연료대체가 발생하는데 기인함
 - 2005년 LNG 소비 비중은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LNG 소비비중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것은 금년 신규 원자력 설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됨.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이고 사용의 편리성도 갖춘 LNG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은 최종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의 비중 상승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석탄 소비 비중은 2004년 보다 다소 낮은 23.5%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LNG와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가동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산업용 유연탄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신규 원전 설비가 도입되는 2009년까지 석탄소비 비중은 완만하나마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원자력의 비중은 신규 설비의 가동에 힘입어 2004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16.1%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1〕 총에너지원별 점유율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2005년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71.7백만 TOE가 될 전망

- 상반기 중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최종 에너지 소비는 하반기에도 3.4% 증가할 전망.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1/4분기 난방도일의 증가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평년 기온을 가정할 경우 3/4분기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9%로 2/4분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4/4분기에는 3.9%로 금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III-4〉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2004					2005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산 업	23.5	22.5	22.6	24.4	93.0	23.9	22.9	23.3	24.9	95.0
(백만TOE)	(2.2)	(2.5)	(3.2)	(1.8)	(2.4)	(2.0)	(2.0)	(2.7)	(2.0)	(2.2)
수 송	8.3	8.8	8.8	8.7	34.6	8.4	9.1	9.1	9.2	35.8
(백만TOE)	(1.7)	(0.5)	(1.9)	(-4.0)	(-0.1)	(1.0)	(3.7)	(3.6)	(5.3)	(3.4)
가정·상업	14.0	7.7	6.4	10.3	38.4	15.1	8.1	6.6	11.1	40.9
(백만TOE)	(0.5)	(2.8)	(2.9)	(-5.7)	(-0.4)	(7.8)	(5.9)	(2.8)	(7.1)	(6.4)
합 계	45.8	38.9	37.8	43.5	166.0	47.5	40.2	38.9	45.2	171.7
(백만TOE)	(1.6)	(2.1)	(2.9)	(-1.3)	(1.2)	(3.6)	(3.2)	(2.9)	(3.9)	(3.4)
도시가스	6,292	3,167	2,017	3,943	15,420	6,951	3,436	2,159	4,510	17,056
(백만m ³)	(5.9)	(7.4)	(6.4)	(-0.1)	(4.7)	(10.5)	(8.5)	(7.0)	(14.4)	(10.6)
석유	190.4	169.9	170.0	189.0	719.3	193.9	173.5	172.3	191.6	731.4
(백만bbl)	(-0.2)	(0.8)	(1.7)	(-3.6)	(-0.5)	(1.8)	(2.2)	(1.4)	(1.4)	(1.7)
전력	80.2	75.3	78.5	78.1	312.1	84.8	80.0	83.3	83.6	331.7
(TWh)	(5.6)	(6.0)	(9.4)	(4.3)	(6.3)	(5.7)	(6.1)	(6.2)	(7.1)	(6.3)
석탄	8,451	8,203	8,309	9,286	34,248	8,351	7,863	8,427	9,407	34,048
(천톤)	(-3.2)	(-2.2)	(-2.1)	(1.2)	(-1.5)	(-1.2)	(-4.1)	(1.4)	(1.3)	(-0.6)
열 및 기타	1,532	1,166	1,022	1,552	5,271	1,872	1,447	1,177	1,762	6,258
(천TOE)	(13.6)	(21.0)	(21.5)	(14.3)	(16.9)	(22.2)	(24.1)	(15.2)	(13.6)	(18.7)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공공부문이 6.4% 증가하여 금년도 에너지 소비를 주도할 전망이며, 수송부문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산업부문은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1/4분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난방용 수요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7.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도 5.9% 증가. 하반기에는 3/4분기 2.9%로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4/4분기는 전년 동기 마이너스 성장의 상대적인 영향으로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감소세를 보였던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05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4분기는 전년 동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인 효과로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95.0백만 TOE로 전망됨.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로 가면서 증가율이 다소 상승할 전망
 - 부문별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용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고 수송용은 20.9%로 전년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정·상업·공공부문의 비중은 23.8%로 소폭 상승 전망
- 2005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도시가스와 전력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석유 및 석탄의 증가율은 완만할 전망이다
- 경기부진과 함께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소비는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감소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년대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 고급에너지로 분류되는 도시가스와 전력수요는 각각 10.6%와 6.3%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열 및 기타에너지는 급증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18.7% 증가할 전망
 - 석탄 소비는 상반기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34.0 백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도 최종에너지의 소비 구성비를 보면 도시가스와 전력의 비중은 상승하나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소비 비중은 2004년 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은 5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가스는 10.8%로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력 역시 16.6%로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구조는 기존의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 2005년 국내 석유제품 수요는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인상률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수송부문의 소비회복은 석유제품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5년 하반기에도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산업부문의 경우 원료수요의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나 증가폭은 다소 완화된에 따라 산업부문의 하반기 석유수요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가정·상업·공공부문 수요는 고유가와 지난해 4/4분기의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지난해 수요 감소가 컸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수송부문의 석유소비는 국제유가와 세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제품가격 인상률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지면서 수요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다소 높아져 전년 대비 연간 3.2% 증가할 전망이다.
 - 산업부문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과 연료 대체로 인해 그동안 연료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업부문 원료 수요는 지난해 하반기 석유화학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올해에는 하반기 성장률이 약간 낮아질 전망이나 여전히 산업부문 석유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수요는 지난해 하반기 고유가로 인한 연료 대체와 4/4분기의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률이 다소 완화된고 4/4분기 평균기온을 감안할 때 감소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전환부문의 올해 석유수요는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평택화력 발전소가

지난해 4/4분기에 보수로 인해 가동이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Ⅲ-5〉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수 송	59.8	63.4	63.5	62.4	249.1	60.6	65.5	65.6	65.5	257.1
	(1.5)	(0.2)	(1.8)	(-4.1)	(-0.2)	(1.3)	(3.2)	(3.4)	(4.9)	(3.2)
산 업	97.7	90.8	93.6	101.0	383.1	100.1	93.3	95.1	101.5	390.0
	(2.3)	(2.1)	(3.5)	(1.2)	(2.2)	(2.4)	(2.8)	(1.6)	(0.5)	(1.8)
- 연료	25.7	22.1	20.5	24.2	92.5	24.1	20.6	19.1	23.4	87.3
	(-3.8)	(-1.2)	(-2.4)	(-10.7)	(-4.8)	(-6.1)	(-6.8)	(-6.9)	(-3.1)	(-5.7)
- 원료	72.0	68.6	73.1	76.8	290.6	75.9	72.7	76.0	78.1	302.7
	(4.7)	(3.2)	(5.3)	(5.6)	(4.7)	(5.5)	(5.8)	(4.0)	(1.7)	(4.2)
가정·상업·공공	32.9	15.7	12.9	25.6	87.1	33.3	14.8	11.6	24.6	84.3
	(-9.6)	(-4.3)	(-10.0)	(-18.1)	(-11.5)	(1.0)	(-5.8)	(-9.9)	(-3.8)	(-3.2)
전 환	10.2	6.7	6.2	9.9	33.0	13.5	6.4	6.7	11.2	37.8
	(-34.6)	(-9.4)	(12.2)	(-15.6)	(-18.0)	(33.0)	(-3.8)	(7.0)	(12.6)	(14.5)
석 유 계	200.6	176.6	176.2	199.0	752.3	207.4	180.0	179.0	202.8	769.2
	(-2.8)	(0.3)	(2.1)	(-4.3)	(-1.4)	(3.4)	(1.9)	(1.6)	(1.9)	(2.2)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주요 석유제품별로 살펴보면, 2005년 상반기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휘발유와 납사 수요가 하반기에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며, 상반기 정체됐던 수송경유 수요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등·경유(수송경유 제외)와 LPG 수요는 상반기 감소세가 지속되고, 중유 수요는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 휘발유 수요는 고유가로 인한 가격 인상률이 타 제품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과 세금조정에 따라 경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휘발유 승용차 선택에 있어 불리함이 다소 제거됨에 따라 상반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그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수송용 경유 수요는 고유가와 세금조정으로 인해 상반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휘발유 소비 증가율의 감소로 인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등·경유(수송경유 제외) 수요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가정·상업·공공 부문 및 산업부문 모두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지난해 4/4 분기의 따뜻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작년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중유 수요는 평택화력 발전소의 보수 완료로 발전용 중유소비가 1/4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원전 가동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중유 수요는 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LPG 수요는 수송부문에서 다소 증가하나 다른 부문의 수요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납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Ⅲ-6〉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휘 발 유	13.4 (-6.6)	14.1 (-5.4)	15.9 (0.1)	14.7 (-4.0)	58.1 (-3.9)	14.3 (6.4)	15.1 (6.6)	16.1 (1.5)	15.1 (2.9)	60.6 (4.2)
수송경유	26.5 (3.3)	29.7 (0.7)	26.8 (3.5)	29.0 (-0.2)	112.0 (1.8)	25.9 (-2.2)	30.3 (1.9)	28.0 (4.4)	30.5 (4.9)	114.6 (2.3)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28.2 (-17.8)	13.0 (-3.8)	11.0 (-14.8)	22.6 (-17.4)	74.8 (-15.1)	26.4 (-6.4)	11.9 (-8.6)	10.2 (-7.0)	21.8 (-3.5)	70.4 (-6.0)
중 유 (발전용 포함)	31.5 (-6.8)	23.8 (-8.3)	21.8 (-6.6)	27.9 (-14.8)	105.0 (-9.4)	32.9 (4.6)	22.8 (-4.1)	22.0 (1.0)	28.7 (2.9)	106.5 (1.4)
납 사	66.3 (3.5)	61.4 (2.0)	66.7 (5.3)	68.5 (5.6)	262.9 (4.1)	70.6 (6.5)	65.7 (7.1)	69.4 (4.0)	70.3 (2.6)	276.0 (5.0)
L P G (도시가스포함)	23.3 (-3.1)	21.8 (5.9)	20.6 (4.8)	22.6 (-6.6)	88.4 (-0.2)	24.5 (4.9)	20.8 (-4.8)	20.0 (-2.8)	22.4 (-0.9)	87.7 (-0.8)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소비량의 합.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4. 전력 수요 전망

□ 2005년 연간 전력수요는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3% 증가한 331.7TWh로 전망됨

- 경기부진 지속으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쳤으나 평년보다 동기간 중 낮은 기온에 따른 난방도일의 증가 등으로 전력소비가 예상보다 높게 증가하였고, 2/4분기에도 산업활동이 다소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는 등 전력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소비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 대비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력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표Ⅲ-7〉 전력수요 전망

(단위 : T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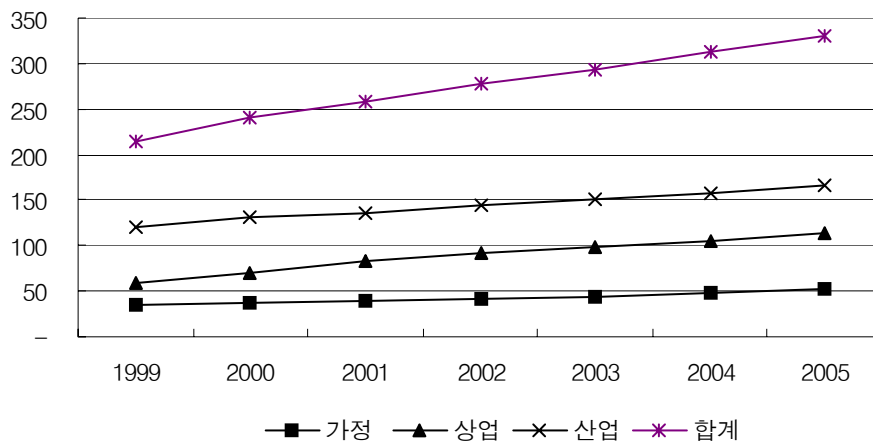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가정용	12.5	11.5	12.7	11.9	48.6	13.2	12.2	13.4	12.7	51.5
	(7.2)	(7.2)	(11.8)	(10.1)	(9.1)	(5.7)	(5.9)	(5.7)	(6.3)	(5.9)
상업용	29.1	24.3	26.3	25.5	105.1	31.4	26.3	28.3	27.7	113.7
	(6.6)	(6.6)	(11.2)	(2.2)	(6.6)	(8.1)	(8.2)	(7.4)	(8.8)	(8.1)
산업용	38.6	39.5	39.5	40.7	158.3	40.2	41.5	41.6	43.2	166.5
	(4.3)	(5.3)	(7.6)	(4.0)	(5.3)	(3.9)	(4.9)	(5.5)	(6.2)	(5.1)
총계	80.2	75.3	78.5	78.1	312.1	84.8	80.0	83.3	83.6	331.7
	(5.6)	(6.0)	(9.4)	(4.3)	(6.3)	(5.7)	(6.1)	(6.2)	(7.1)	(6.3)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비하여 1% 포인트 높은 4.3%로 전망되나 전년도 3/4분기 고온 현상에 따른 소비급증의 상대적 영향으로 3/4분기 전력소비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전망이다. 4/4분기 전력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상업용 전력수요 증가율이 8.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용과 가정용은 각각 5.1%와 5.9% 증가할 전망이다. 냉방용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3/4분기 가정용과 상업용 소비는 전년 동기의 높은 증가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2/4분기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III-2] 전력 수요 전망

(단위 : 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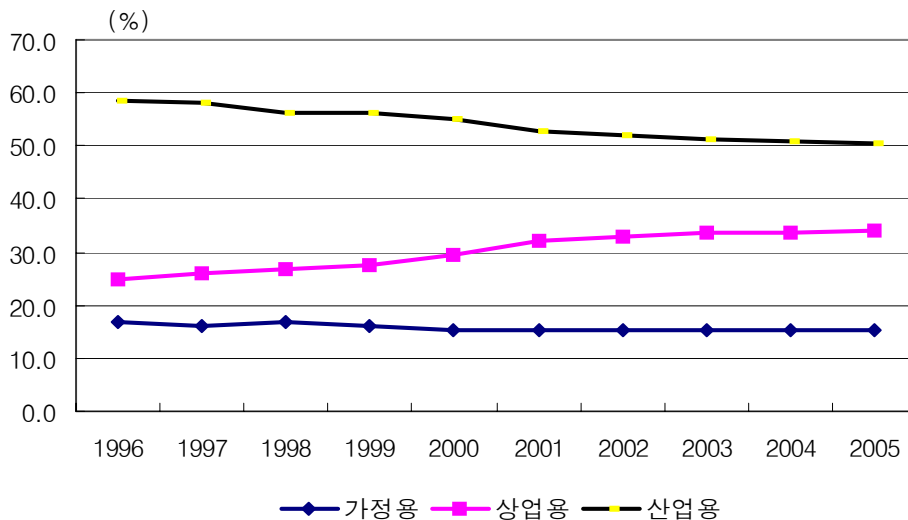
□ 2005년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은 산업용은 감소하고 상업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전력소비 점유율은 2001년 52.7%, 2002년 51.9%, 2003년 51.2% 그리고 2004년에는 50.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50.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상업용의 경우는 2001

년 32.1%, 2002년 32.9%, 2003년 33.6% 그리고 2004년에는 33.8%로 상승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는 34.3%까지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가정용 전력의 비중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15.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04년에는 15.4%로 다소 높아짐. 2005년에는 15.5%로 전망됨

- 부문별 전력 소비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2001년까지는 상업용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용과 주택용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였음. 2002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변화 정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3]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5. LN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 2005년 LNG 수요는 2004년 대비 5.5% 증가한 23,008천톤으로 예측됨.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7% 소폭 증가에 그쳤고 2/4분기는 발전용 LNG 수요 감소에 따라 -11.2%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하반기에는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LNG 수요도 3/4분기와 4/4분기 각각 14.3%와 13.7% 증가할 전망

- 2005년 도시가스용 LNG 소비 증가율은 10.5%로 전년도의 4.4%에 비하여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3/4분기는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 및 소비 활동 강화와 요금 인하 효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하며 4/4분기는 전년 동분기의 고온 현상에 대한 상대적 효과로 인해 12.7%로 증가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9,086천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4년 영광 5,6호기 원전가동 일시 중지 및 여름철 고온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LNG 소비가 크게 증가한 상대적인 요인 외에도 2005년 울진 5,6호기 준공 및 가동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실제로 금년 1/4분기와 2/4분기 모두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발전용 LNG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6.8%, 24.4% 감소함

〈표III-8〉 LNG 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4					2005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도시가스용	4,999 (5.3)	2,169 (8.0)	1,577 (5.9)	3,759 (0.7)	12,504 (4.4)	5,623 (12.5)	2,268 (4.6)	1,686 (6.9)	4,237 (12.7)	13,814 (10.5)
발 전 용	2,729 (81.5)	2,137 (15.7)	1,839 (31.7)	2,113 (22.7)	8,818 (36.3)	2,545 (-6.8)	1,616 (-24.4)	2,277 (23.8)	2,521 (19.3)	9,086 (1.6)
L N G 계	7,895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84 (17.2)	8,263 (4.7)	3,905 (-11.2)	4,006 (14.3)	6,833 (13.7)	23,008 (5.5)

-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LNG계는 자체소비가 포함된 1차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3.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 및 자가발전 LNG 투입량도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13,814백만m³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가스용 LNG 소비는 1/4분기 난방도일의 증가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4분기에는 상업용 수요가수의 높은 증가와 산업 활동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체 4.6%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회복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도시가스용 LNG 소비 증가세가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3/4분기에는 6.9%, 4/4분기는 전년 소비부진의 상대적 영향도 작용하여 12.7%라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는 수요가수가 5% 후반대의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고 평균기온 가정 시 전년에 비해 금년 4/4분기 난방도일이 증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2005년도에는 9.5% 증가할 전망
-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는 1/4분기에 8.1%, 2/4분기에 6.5% 증가한데 이어 2004년 소비부진의 상대적 영향 등이 함께 작용하여 하반기에 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가정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2000년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Ⅲ-9〉 도시가스 수요 전망

(단위: 백만 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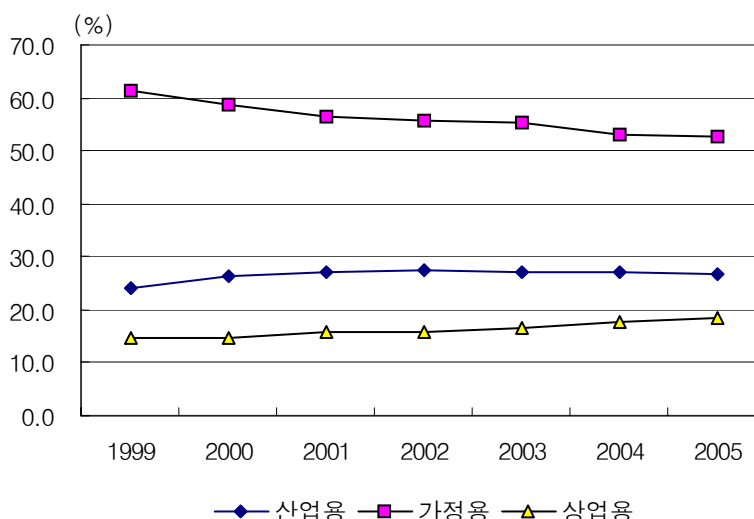
구 분	2004					2005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가 정 용	3,945 (4.0)	1,629 (4.8)	541 (-6.7)	2,103 (-4.3)	8,218 (1.1)	4,266 (8.1)	1,736 (6.5)	592 (9.2)	2,401 (14.2)	8,995 (9.5)
상 업 용	1,034 (12.8)	501 (14.1)	529 (17.6)	654 (3.7)	2,718 (11.5)	1,265 (22.3)	581 (16.0)	543 (2.6)	807 (23.4)	3,196 (17.6)
산 업 용	1,223 (4.9)	964 (5.6)	873 (6.4)	1,113 (3.1)	4,174 (4.9)	1,325 (8.3)	1,023 (6.1)	936 (7.2)	1,208 (8.6)	4,492 (7.6)
도시가스 계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36 (8.5)	2,159 (7.0)	4,510 (14.4)	17,056 (10.6)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도시가스계에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2004년 1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상업부문 도시가스 소비는 2005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확장되어 17.6% 증가한 3,196백만 m^3 로 전망됨.
- 2005년 1/4분기, 2/4분기 모두 25%대의 높은 수요가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로의 대체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 3/4분기와 4/4분기에도 경기회복과 겨울 기후를 고려할 때 각각 2.6%와 23.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급등해온 고유가가 상업용 부문의 도시가스 대체수요를 촉진함에 따라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함.
- 산업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하반기 산업 활동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3/4분기 7.2%, 4/4분기 8.6% 증가하여 2005년 연간으로는 7.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가스의 부문별 소비구조를 보면 가정용의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상업용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가정용의 비중은 52.8% 까지 줄어드는 반면 상업용은 18.4% 까지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 III-4]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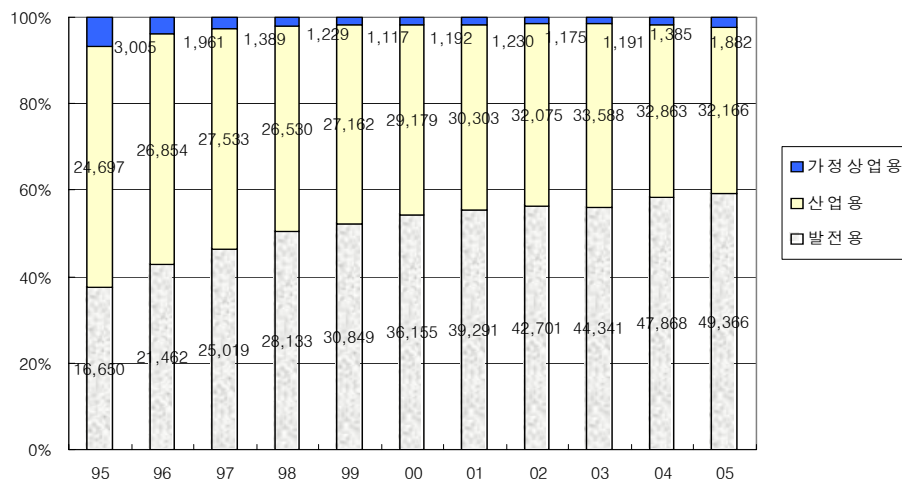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 2005년 석탄수요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석탄소비 증가를 주도하는 발전용 수요둔화(3.1%)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1.6% 증가한 8,34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석탄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발전용 석탄은 2005년에 설비증설 저조(당진 석탄화력(500MW, 2005년12월)], 원전 설비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8.0%)보다 크게 둔화된 3.1%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산업용 석탄은 2004년에 2.2% 감소한데 이어 2005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2.1%).
- 가정·상업용 수요는 경기둔화 지속 및 석유가격 급등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되고, 화훼단지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3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III-5] 용도별 석탄수요 및 점유율 전망

(단위: 천TOE)



- 총 석탄수요에서 차지하는 발전용 수요의 비중은 2003년 56.0%에서 2004년에 58.3%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59.2%로 상승할 전망이다. 산

업용 석탄의 비중은 2003년 42.5%에서 2004년 40.0%, 2005년에는 38.6%로 하락할 전망이다. 가정·상업용 수요 비중은 올해 연탄소비 급등전망에 힘입어 2004년 1.7%에서 2005년에는 2.3%로 늘어날 전망이다.

□ 2005년의 무연탄 수요는 경기둔화로 인한 산업용 수요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10〉 석탄 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 분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무연탄계	2,145	1,735	1,907	2,351	8,137	2,109	1,587	1,856	2,528	8,080
	(-7.2)	(-11.1)	(6.1)	(-6.7)	(-5.2)	(-1.7)	(-8.5)	(-2.7)	(7.5)	(-0.7)
가정·상업	340	117	160	768	1,385	539	178	228	937	1,882
	(-9.8)	(6.4)	(14.3)	(36.2)	(16.3)	(58.5)	(52.1)	(42.4)	(22.0)	(35.9)
산업	1,122	941	1,152	1,182	4,396	1,053	761	1,065	1,138	4,018
	(-12.7)	(-10.7)	(8.2)	(-7.4)	(-6.1)	(-6.2)	(-19.1)	(-7.5)	(-3.7)	(-8.6)
발전	683	677	595	401	2,356	517	648	563	453	2,181
	(5.2)	(-14.1)	(0.3)	(-41.0)	(-13.1)	(-24.3)	(-4.3)	(-5.4)	(12.9)	(-7.4)
유연탄계	18,284	17,753	18,540	19,402	73,978	17,942	18,428	19,214	19,750	75,334
	(5.4)	(2.7)	(5.0)	(6.3)	(4.9)	(-1.9)	(3.8)	(3.6)	(1.8)	(1.8)
제철	5,168	5,162	5,198	5,311	20,839	5,092	4,975	5,312	5,350	20,729
	(2.5)	(1.6)	(0.0)	(2.4)	(1.6)	(-1.5)	(-3.6)	(2.2)	(0.7)	(-0.5)
시멘트	1,184	1,457	1,253	1,415	5,309	1,033	1,398	1,266	1,380	5,077
	(-15.5)	(-9.4)	(-18.2)	(-6.9)	(-12.4)	(-12.8)	(-4.0)	(1.0)	(-2.4)	(-4.4)
기타산업	636	527	547	609	2,318	633	551	556	602	2,342
	(1.8)	(-1.0)	(-1.9)	(-2.6)	(-0.9)	(-0.5)	(4.6)	(1.8)	(-1.2)	(1.0)
발전	11,296	10,607	11,542	12,067	45,512	11,184	11,504	12,080	12,418	47,185
	(9.9)	(5.4)	(11.4)	(10.5)	(9.3)	(-1.0)	(8.5)	(4.7)	(2.9)	(3.7)
석탄계	20,430	19,487	20,446	21,753	82,116	20,051	20,015	21,070	22,278	83,414
	(3.9)	(1.3)	(5.1)	(4.7)	(3.8)	(-1.9)	(2.7)	(3.0)	(2.4)	(1.6)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가정·상업용 무연탄수요는 석유 대비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2004년에 16.3%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36% 내

외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 1998년 이후 급등세를 보여 온 산업용 무연탄 수요는 제철공정의 원료용 수요 증가세가 꺾이면서 2004년에 6.1% 감소한데 이어 2005년에도 경기부진으로 감소세(-8.6%)가 이어질 전망이다.²⁾
- 2005년 발전용 무연탄 수요는 전년 대비 7% 내외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전량 국내산이 사용되는 발전용 무연탄은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당분간 일정수준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유연탄 수요는 산업용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발전용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1.8%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일관제철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철용 유연탄 수요는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상반기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의 개보수로 인한 66일간의 가동정지의 영향으로 2005년에 0.5%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05년의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수요는 건설투자 부진 및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에 이어 감소할 것이나, 감소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투입에너지로 주로 이용되는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1.0%)할 것으로 예상됨.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30만 톤 내외의 수요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2005년의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설비증설 저궤당진 석탄화력(500MW, 2005년 12월 가동예정)], 원전 설비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9.3%)보다 둔화된 3%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 산업용 무연탄 수요가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여온 이유는 제철공정의 신기술 도입으로 원료용 무연탄이 원료용 유연탄을 일부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열에너지 수요는 기온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 내외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열에너지수요는 올해 1~3월의 추운 날씨로 인하여 1/4분기에 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으며(15.8%), 2004년 4/4분기의 온화한 날씨에 따른 올해 4/4분기의 수요 반등전망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총 열에너지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상업용 수요는 10.0%, 공공·기타용 수요는 16% 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 2005년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I-11〉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 분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e	4/4e	연간e
열에너지	632 (4.8)	186 (9.0)	83 (1.4)	442 (-0.7)	1,343 (3.3)	732 (15.8)	193 (3.5)	84 (1.2)	470 (6.4)	1,479 (10.1)
신재생/기타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1,093 (14.7)	1,292 (15.2)	4,779 (20.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KEEI 에너지수요전망 (제7권 제2호)

2005년 8월 22일 인쇄

2005년 8월 24일 발행

發行人 方基烈

發行處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1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登 錄 1992년 12월 7일 제7호

印 刷 상문상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